



## 차기정권 최우선 과제 '부정부패 청산'

### 폴리뉴스·알앤씨 여론조사 결과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신년 대선특집조사>에서 차기 정권의 당면 국정과제에 대한 조사에서 '최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 1,133명을 대상으로 조기 대선 이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당면 국정과제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정부패 청산'이 42.4%로 다른 항목에 비해 큰 격차로 1위로 꼽혔다.

### 공공업무시설 2~5층까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능

행정부,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 개혁과제 63건 발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공공업무시설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과를 공유해 중복 점검을 방지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사회 분야과제 63건을 발표했다.

또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인의 개별 숙박도 허용해 지역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소년수련원의 숙박 시설은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숙박만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단체·직장의 단체연수 시에만 일반인의 숙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지역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발굴한 규제 건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협업으로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수용률(51.9%)을 달성했다.

산업단지들 만들 때 사업자와 환경부가 하는 폐수처리시설 수질 협의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부와 국무조정실은 이들 주요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을 둔 산업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은 건물 1층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공공업무시설(국가·지자체 청사의 2~5층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로 지역 보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 개설자의 지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해 약국 양도·양수 절차가 간편해져 관련 종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홍윤식 장관은 "이번 규제개혁은 지역 현장의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건의과제를 발굴해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는 행정부, 교육부, 복지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점검·감독이 나섰으나 앞으로는 부서 협업을 통한 점검을 일원화하고, 진단 결

김정환 기자

결' 5.0% 순이었다(잘 모름 66%). '경제성장'에 대한 응답 비율이 '경제민주화' 등 보다 높은 것은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와 '경기 침체' 여파로 '부패 청산'과 '경제성장'에 약 70%가 집중되면서 남북문제 등 다른 과제에 대한 응답이 낮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응답률 또한 '경제성장'에 비해 낮아졌다. 따라서 차기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은 이 두 국정과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국민들에게 입증시키는 것이 정책경쟁의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부패청산'은 20대(56.7%), 30대(51.3%), 40대(45.6%)에서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경제성장'과제가 이를 연령층에서 모두 2위를 기록했다. 50대에선 '부패청산'(35.6%)과 '경제성장'(34.7%)이 비슷하게 나왔고 60대 이상 연령층은 '경제성장'이 39.1%로 가장 높았고 '부패청산'은 27.6%로 2위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패청산' 45.4% 대 '경제성장' 26.4%, 경기/인천 '44.1% 대 26.6%', 충청권 '41.8% 대 23.4%', 강원/제주 '42.9% 대 13.7%', 호남권 '48.1% 대 24.4%'로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패청산'을 먼저 꼽았고 다음으로 '경제성장'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부패청산' 36.2% 대 '경제성장' 37.5%로 경제성장이 근소하게 앞섰고 대구/경북에선 '35.8% 대 45.3%'로 '경제성장'을 먼저 꼽았다.

대선 4차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층에선 '20% 대 41.8%'로 경제성장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새누리당 탈당파가 이끌 보수신당 후보 지지층에서도 '34.4% 대 40.0%'로 '경제성장'이 높았다. 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58.3% 대 18.2%'로 '부패청산'에 대한 요구가 우세했고 국민의 당 후보 지지층에서도 '40.3% 대 33.1%'로 '부패청산' 응답이 더 많았다. '지지정당 후보가 없다'는 층에선 '25.6% 대 42.0%'로 '경제성장'이 높았다.

또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자질을 묻는 조사에서는 '도덕성'

(25.3%)과 '소통과 화합능력'(25.2%)로 비슷한 비율로 1, 2위에 꼽혔다. 다음으로 책임감(18.7%)과 결단력(12.0%)을 지목했고 이어 지도력(9.0%), 정치경력(2.1%) 순이었다.

'도덕성'과 '소통과 화합능력'이 높게 나온 것은 '최순실 게이트'의 영향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선 '소통'(31.5%)이 '도덕성'(23.0%)보다 높게 나왔고 30대에선 '도덕성'(29.0%)이 '소통'(26.9%)보다 높았으며 40대는 '소통'(32.3%)이 '도덕성'(28.3%)보다 높았다. 50대는 '도덕성'(26.8%)과 '소통'(22.7%)이 1, 2위였고 60대 이상에선 다른 연령대와 달리 '책임감'(25.6%)이 '도덕성'(20.3%)과 '소통'(15.2%)보다 높게 나왔다.

서울과 경기인천 수도권과 대구/경북에서는 '소통능력'이 가장 높았고 충청권과 강원/제주, 호남권, 부산/경남/울산에선 '도덕성'을 더 꼽았다.

대선 4차 가상대결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한 층에선 '결단력'(22.4%)이 '책임감'(19.9%), '도덕성'(18.8%)보다 높았고 새누리당 탈당파가 주도할 보수신당 후보 지지층은 '도덕성'(25.6%), '소통능력'(24.6%)이 높았다. 민주당 후보 지지층은 '소통'(31.3%), '도덕성'(30.4%)로 비슷했고 국민의당 후보 지지층은 '소통'(27.5%)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20.6%)였다.

이번 조사는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씨>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13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추출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했으며 통계조정에는 성·연령·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2016년 7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기준). 응답률은 4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9%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정복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

더민주 여성 대전 광역·기초의원들 "밀실·졸속 합의의 자행"

더불어민주당 여성 대전 광역·기초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국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이 1992년 1월 8일부터 1263차례 이르는 수요시위를 통해 일본정부에 요구한 범죄인정, 공식사죄,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철저히 외면한 채 밀실·졸속 합의의 자행

했다"면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동원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인권유린과 침략역사에 대한 참된 반성과 성찰도 없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며 피해자 할머니들을 물질적으"고 밝혔다.

또한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이 아닌 '거품금' 10억엔으로 위로금 지급을 강행하고 '피해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뻔뻔스럽게 홍보하고 있다"면서

"피해당사자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이는 필수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은 "굵직한 한·일합의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면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는 10억엔 지급을 즉각 중단하고 화해치유재단을 당장 해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국정농단 사태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이정복 기자

### 대전시 제야의 종타종식 31일 진행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31일 자정 시청 남문광장에서 2017년 새해를 맞아 시민의 희망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야의 종 타종식'을 개최한다.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먹거리 나누기, 축하공연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타종식에 이어 불꽃놀이 등이 식후행사로 진행된다.

타종은 밤 12시 정각에 새해를 맞아 다시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고, 모든 시민이 더불어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염원을 담아 종 33번의 타종을 하게 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0시부터 행사장 주변에서 송년김밥이와 사물놀이, 소망풍선 날리기, 희망연서 보내기, 축하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2시간여 동안 펼쳐진다. 또한 식후행사는 멋진 불꽃놀이를 연출, 새해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둔산동까지네거리~시청네거리 300m 구간을 오후 8시부터 행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교통을 전면 통제하게 되며, 도시철도를 새벽 1시 20분(시청역 기점)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영호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모든 것을 새롭게

# 故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무단열람 조사 '부실·축소'

이종배 의원, 안락교재기설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 서울대병원, 정보기관 등 외부유출 가능성은 처음부터 조사 안해

서울대병원이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무기록 무단열람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 부실·축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교문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무기록 무단열람 의혹을 조사하면서, 당시지들에게 서면조사만 진행했으며, 단 한차례도 추가조사나 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모두 '주의'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0월 국무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전자무기록이 무려 27,178건이나 비정상적으

로 조회되었고 고인과 무관한 산부인과, 소아과, 신생아실, 특실병동 등에서 무단열람 되었다면서 외부유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자체 조사를 통해 총 27,178건의 조회기록 중 무려 86명이 업무 외 목적으로 열람했고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사건을 축소하고 부실하게 처리하면서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조승래 의원의 지적이다.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외부유출 가능성은 처음부터 조사하지 않았으며, 의무기록을 '조회한 적 없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 도용 등에 대해 단 한차례도 추가·대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안 요원이 상주하는데다 의료진의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된다는 특실병동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열람했다'는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에는 故양드레김 사망 시 사망원인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듬해인 2011년 노태우씨



이명수 의원,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주최·수도권일보·시사뉴스)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주최측인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는 '국정감사 기간 국민의 대표로서 투철한 시정감으로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 주위의 귀감이 된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28일 '충주 노은면 안락교재기설'을 위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고 5억원 확보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은면 안락리 황포천 일원에 위치한 안락교는 농경지 및 마을 사이를 연결하는 비법정 소교량으로 시설이 노후되어 구조적으로 불량하고, 특히 하천기복 계획 기준보다 미달되어 안전사고 및 농경지 피해가 우려돼 재가설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교량재기설을 위한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함에 따라, 특고 5억원 반영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었다.

## 중금속 오염 원인규명...입장저수지 환경복원 '첫 발'

박완주 의원, 관계부처·기관 및 입장이주민 등 협의의 장 마련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지역주민의 우려를 낳았던 입장저수지의 중금속오염 원인규명과 환경복원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원인규명 및 환경복원방안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환경공단·국립농산물관리관리원·한국농어촌공사·입장농협·천안시 등 관계부처·기관 담당자와 입장이주민 20여명

이 참석해,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 원인규명 및 환경복원방안 수립용역의 범위와 부처간 역할분담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 2월부터 7개월간 <입장저수지 오염현황 및 복원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저수지 오염현황 ▲중금속오염 원인을 분석하고 복원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충남 천안에 소재한 입장저수지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정부당국에 입장저수지 및 인근 토양의 중금속오염의 원인규명과 환경복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입장저수지 및 인근 토양을 조사한 결과, 저수지 물과 퇴적물에서 기준치 이상

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인근 폐광산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 저수지 상류와 하천, 토양에 오랜 기간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오염원인은 지속적인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입장저수지 중금속 오염 원인 규명 및 환경복원대책 수립 용역비 3억원을 국회에서 반영시켜, 내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연구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입장저수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지역주민의 안전은 물론 지역특산물 판로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라며 "조속한 원인규명과 환경복원으로 지역주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박병석 의원, 소속당과 시민단체 국감우수의원 수상

9년 연속 우수의원...2017년 의정활동 중 14번 '현역 최다'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갑·5선·사진)이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주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28일 동시에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운데 올 국무에서 돋보인 활약을 보인 박 의원을 국무 우수의원으로 선정하면서 "201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감사활동과 대안제시를 통해 민생정치 실현에 기여하고 당의 명예를 드

높였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오전 10시 국회 현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무각급 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사진>에서 9년 연속 우수의원에 올랐다. 이로써 16대 국회부터 내리 다섯 번 당선된 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300명 중 자신이 갖고 있던 NGO 국무 우수의원 최다 수상기록을 종전의 13회에서 14회로 늘렸다.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하 'NGO 모니터단')은 매년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박 의원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 마음먹은 초심을 한결같이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 안팎에서 국정감사 관련 상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무이 개시되는 날 여당이 농수축산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의 통과에 항의해 국무 보이콧을 선언하자 여권의 중심은 물론 정세균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해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 조승래 의원,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유성 봉명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해

조승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은 28일 유성 봉명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유성구 봉명동(540-10) 일원은 집중호우시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 및 저지대가 침수되어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2013년에는 대전시풍수해종합계획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었다"며 "이에 우수 관개개량을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시행이 절실히 필요했으나 열악한 구청의

재정여건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봉명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진행되면 원활한 우수배출로 침수 피해 위험 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당 국경교과서 저지특위 간사를 맡아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정복기자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자원봉사단체 '유신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28일 유성지역 자원봉사단체인 유신회 회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신회 이병진 회장은 "송 의원은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으로 지역문화발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우리 지역의 위상과 여건 개선에 크게 공헌하였다"며 감사패 증정의 이유를 밝혔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6400건 사라진다

주민 생활을 불합리하게 제한한 조례나 규칙 등이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6400건의 지방규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중앙부처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규제개혁 체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법근거가 없는 임의적 규제, 상위법령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폭을 축소해 소극 규제 등이 정비사업의 대상이었다.

개선대상 과제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 주관 부처 외에도 법령 소관부처가 함께 발굴했다. 지자체는 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 신속하게 자체규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건물 부지 안에 공중에 위험물 끼치지 않으면 일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시도의 조례 개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 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로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가 없이 건축물 미술품품 출품을 제한하도록 조례에 규정해 심의위원회의 예술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도 나타났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역경쟁이 활성화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의 규제개선 노력이 즉각 지역 주민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신용현 의원, 국민의당 여성위원장 출마 선언

"행동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회의당 간사)이 28일 국회 정문관에서 "행동하고 참여하는 여성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여성 원내대표로 활동 중인 신용현 국회의원은 국민의당)은 이번 출마 선언을 통해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여성 중심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전국여성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여성 과학자 출신이기도 한 신용현 의원은 또 "과학자의 삶이 아닌 정치라는 새로운 장에 들어선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기 때문이다"며 "여성들이 덜 차별받고, 더 안전한 세상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용현 의원은 여성

위원장 주요 실천공약으로 ▲ 단단하고 내실있는 전국여성위원회 구축 ▲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 확대 ▲ 심화되고 있는 남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 사회적 약자, 여성보호를 위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 회복과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당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 등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원자력안전과 미래에서 원자력안전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의미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여성과학자로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을 지냈으며,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의회 박병철 교육위원장, 시교육청 노동조합 감사패 수여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박병철(대덕구 3,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창주 위원장은 "박병철 의원은 7대 후반기 교육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 증진과 각종 불합리한 조례 개정 등 대전교육발전과 지방공무원 권익신장에 기여한 공이 많아 추

진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제228회 정례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가장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자기개발과 재충전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박병철 위원장은 "시교육청 노동조합원들이 주는 감사패를 받으니 매우 기쁘다"면서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일선공무원의 만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앞으로의 정경호도 오늘 증여로 완료해 살처분을 매일매일 종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늘도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AI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일주일 내 AI 발생 추세를 반드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 황 권한대행 "AI 과로사 공무원 애도...방역인력 운영 만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AI 대응을 위해 많은 공직자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 어찌 지방의 한 공무원이 과로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말 그렇다면 안타깝고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AI 인입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비장한 각오로 AI에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더 다지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오랜 방역활동으로 인해 방역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피

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며 "방역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력인력 확보 등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앙은 지방에서 건의한 현장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하고 지방은 이를 방역현장에서 철저히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은 살처분에 적극 참여하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은 "살처분 건과 관련해 경기지역과 인천 등은 실무부를 이미 완료한 것으로 보고 들었다"며 "나머지 계획된 시계와 정읍의 잔여분도 오늘 증여로 완료해 살처분을 매일매일 종결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오늘도 농식품부장관과 함께 AI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일주일 내 AI 발생 추세를 반드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 취업률 전국 상위권”

## 한밭대학교

한밭대학교는 2017년 개교 90주년을 맞는 대전의 지역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지역의 산업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함께 성장한 대학이다.

1927년 개교 이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한 한밭대학교는 사회의 요구에 맞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합된 취업과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역할을 다해 졸업생 취업률에서 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2012년 산업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면서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학·석사 학위 통합과정(학·석사 5년제)과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했으며, 산학협력의 특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유성캠퍼스에 산학연협동관과 대덕특구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대덕산학융합캠퍼스를 구축했다.

또한, 1600여개의 가족회사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학의 연구기술 결과를 사업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적인 개념의 수익형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등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산학활동을 고도화 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한밭대학교의 도전과 혁신의 노력으로 한밭대학교는 지방대학특성화사업(CX),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LINC),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국립대학혁신지원사업(PoNT),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등 각종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데 등 지금까지 90년의 걸어온 길보다, 100년의 걸어갈 길이 기대되는 대학이다. <편집자 주>

### <한밭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 소개>

한밭대학교는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 군(주간) 506명, '나' 군(야간) 140명 등 22개 모집단위(학과) 총 646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평생학습자전형 제외)

모든 계열(평생학습자전형 및 '가' 군 일반전형 디자인계열 제외)을 수능 100%로 선발하며, 반영교과 및 비율은 자연계열이 국어 20%, 수학 35%, 영어 30%, 탐구 15% 등이며,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20%, 영어 40%, 탐구 10% 등이다.

경상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10%, 디자인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중 상위 두 과목을 각각 40%와 탐구 20%를 반영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선정으로 신설된 평생학습자전형은 수시모집에서 5개학과 13명(정원내 35명, 정원외 101명)을 모집하였는데, 이 중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한다.

원서접수는 12월 31일부터 2017년 1월 4일까지이며, 한밭대 홈페이지 또는 진학사 원서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는 2017년 1월 31일 오후 3시 이후 한밭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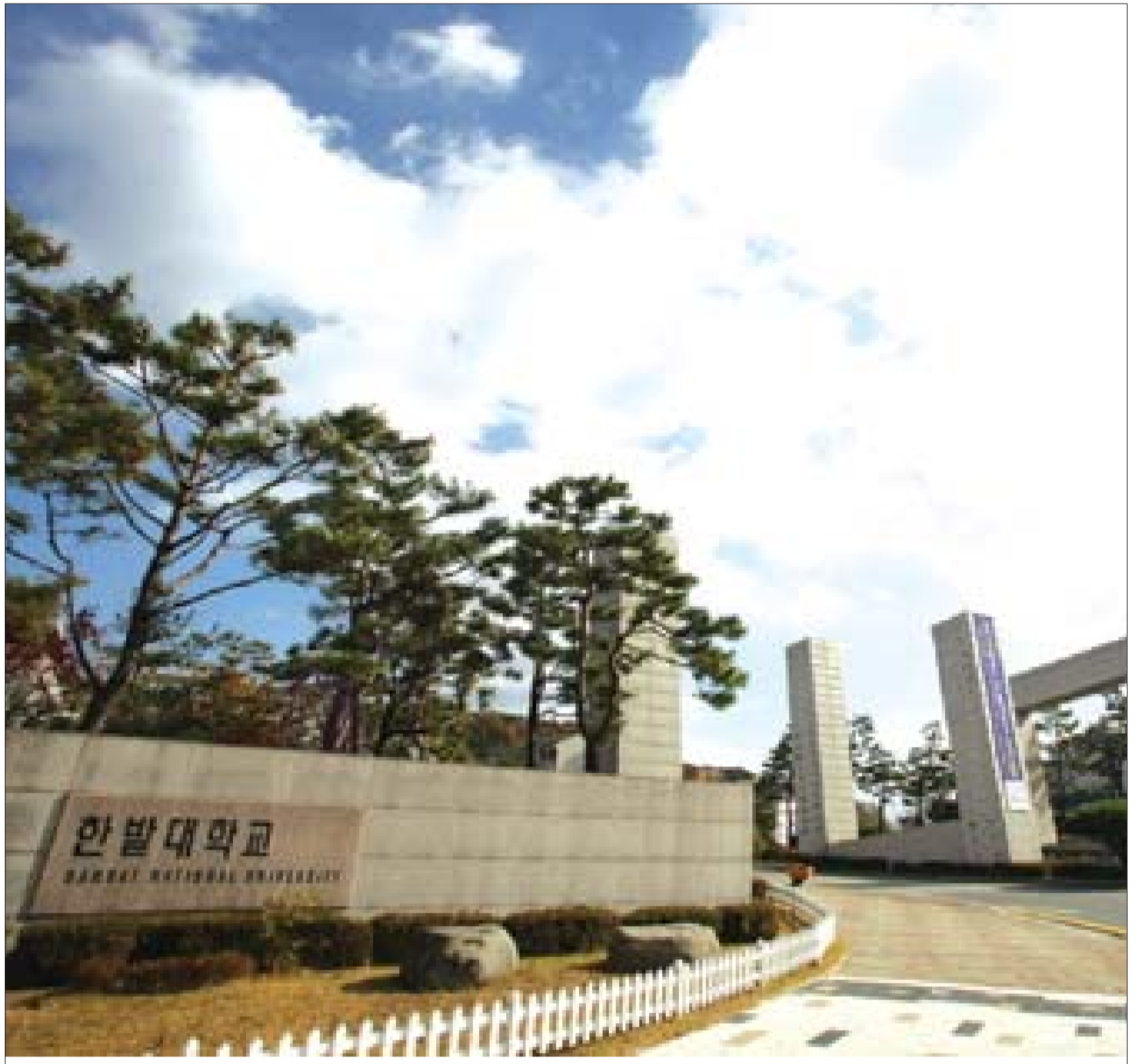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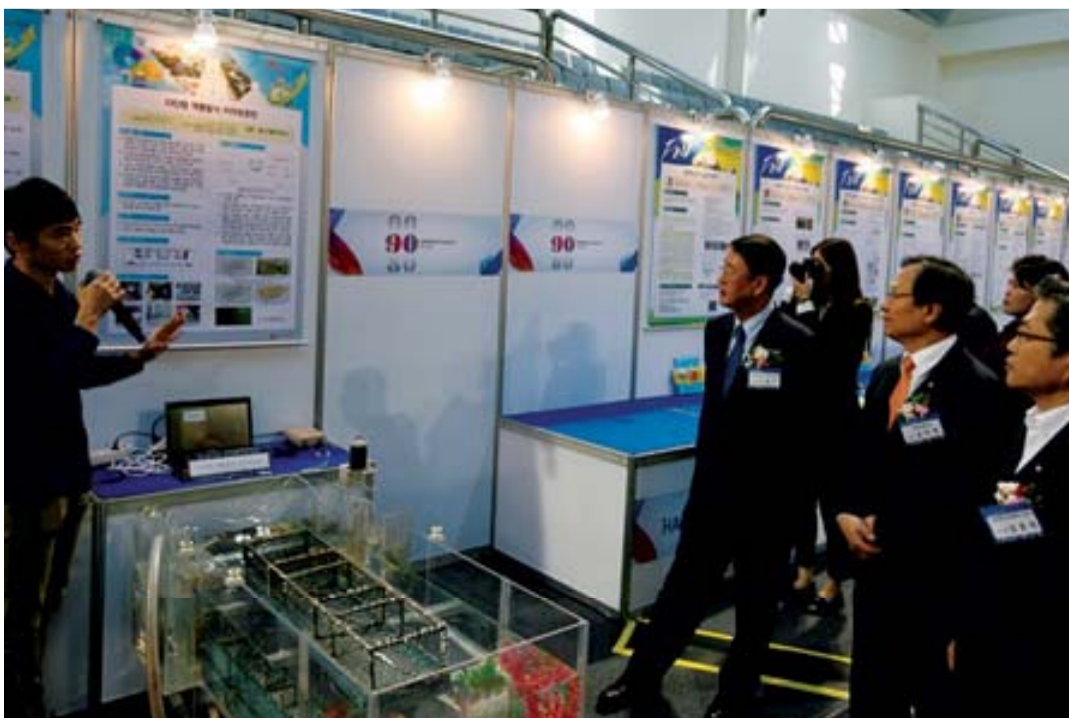
### ◆ 신산업 창출을 위한 IT융합 인력양성 사업단

한밭대학교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중간평가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향후 3년간 매년 약 20억원씩 총 60여억원을 계속 지원받는다.

IT융합 인력양성 사업단은 정보기술대학 소속의 전기공학과, 전자제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 4개 학과 소속 60여명의 교수와 15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그 동안 수행해 왔던 BK21사업, NURI 사업 등 다양한 국가지원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구축된 선진교육환경 및 산학협력환경을 활용하여 한 단계 진보된 교육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IT 분야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사업단은 ▲지식전수 중심의 교육시스템에서 진보하여 학습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역량 중심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산학융합형 평가도구개발, 상호만족형 인턴십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산업체가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추



진한다.

특히, 역량기반 교육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모든 학생에게 일률적인 역량 달성 목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 특성과 전공 트랙 및 세부 직무에 따라 목표가 다르게 설정되며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목표가 보완되고 개인별 이수계획도 보완된다는 점이 본 사업단 프로그램의 특징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역량 및 적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만 따라가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확신 있는 대학생활, 방황하지 않는 대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대전 충청권 지역 산업체는 기본 소양을 갖추었은 뿐 아니라 전공 실무의 응용능력이 우수한 신산업 창출형 IT융합 인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DESIGN+ Firstmover 사업단

1명의 창의적인 디자이너가 10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각디자인학과와 산업디자인학과가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 창조산업을 이끌어갈 디자인 퍼스트무버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단은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은 아이디어(상상력)중심의 디자인이며 디자인은 기술보다 상품화율이 높은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에 배경을 두고 추진되었다. 디자인 퍼스트무버 양성을 위해 기본기가 충실한 디자이너, 생각의

폭이 넓은 디자이너, 실천력있는 디자이너를 핵심 지표로 창의적 교육환경 구축과 내실있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수업방식을 지향하며 창의성이 높은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융합전공과 스페이스미디어 콘텐츠 융합전공, IP스타트업 융합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위하여 글로벌 인턴십, 글로벌 워크숍, 글로벌 문화탐방, 국제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어민 영어회화 교육인 글로벌 매너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 디자인 대학과도 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미국 SVASchool of Visual Arts 등을 비롯한 중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 등과 교류 및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수업시간에 제작을 통한 아이디어 구현과 이를 통한 사업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D+FM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디자인버스를 통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D+FM사업단은 실무능력과 융합적 지식을 겸비하고 신시장을 선도할 디자인 퍼스트무버 양성을 목표로 FM1 현장중심교육, FM2 글로벌융합교육, FM3 창업인재교육 등 3단계로 특성화 교육과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 ◆ 중국비즈니스전문인력(CBS)양성사업단

매년 3억씩 2016~2018년간 총 9억을 지원받는다. 중국비즈니스전문인력(China Business Specialist) 사업단이 추진하는 핵심 사업은 연계전공과정이다.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와 중국어과 학생들은 연계전공을 통해서 경영학과 중국어를 동시에 배우고 중국비즈니스 전문가로 성장한다. 연계전공과정 이수자는 경영학사/문학사로서 중국비즈니스 연계전공을 이수하였음이 졸업 학위기에 명문화된다.

CBS 양성사업단에서는 비교과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중국비즈니스 포럼 2.중국 견학 프로그램 3.중국 국제전시회 프로그램 4.중국권 지대학연수 프로그램 5.중국 현지기업 인턴십 6. 중국어 경진대회 7.영어 경진대회 8.China Biz 동아리 운영 9.ChinaBiz Zone 운영

이 사업단이 추구하는 인재상은 첫째,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기질 및 문제 해결능력을 가지고 지능화시대의 업무환경에 적응력이 높은 인재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비즈니스전문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거시적 환경과 산업 환경을 이해, 분석할 수 있고 중국어로 소통 및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셋째, 실무지향형인재 육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실무 감각을 가진 현장적응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하다.

이정복 기자

### <2017학년도 정시모집의 특징>

한밭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는 2017학년도 정원내 모집인원 1852명 중 수시모집에서 1206명을, 정시모집에서 646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군별로는 '가' 군(주간) 506명, '나' 군(야간) 140명을 모집하는데, 이는 2016학년도 대비 '가' 군 3%(16명), '나' 군 49%(138명)가 감소된 인원입니다. (\* 2016학년도 정시 '가' 군 522명, '나' 군 278명 모집)

물론 수시모집인원 중 미충원 인원이 있을 경우, 정시모집으로 이월하여 선발하기 때문에 선발인원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선발 방법은 모든 계열(평생학습자전형 및 '가' 군 일반전형 디자인계열 제외)을 수능 100%로 선발하며, 한국사는 필수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신설된 미래산업융합대학은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 <합격을 위한 팁>

한밭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서는 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주간은 '가' 군, 야간은 '나' 군으로 모집하며, 인문계와 자연계간 교차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대학의 모집군을 잘 확인하여 우리대학의 원하는 모집단위(학과)에 지원하시면 된다.

전국대학 중에 야간으로 선발하는 몇 개 안되는 대학중 하나인 야간의 경우는 주간과 교육과정의 거의 같으며 16개 모집단위(학과)에서 140명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한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공대중심의 대학으로 전행 시에도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능력시험 수학교과 반영비율이 35%이며, 그중에서도 '수학 가' 선택 시 취득 백분위 점수의 20%를, '과학 탐구' 선택 시 취득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수학 가'와 '과학 탐구' 점수가 높은 학생들에게는 우리대학의 자연계열 학과 지원시 합격이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특 정 ●

지방공무원인사발령 시령장교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29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7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시령장을 교부한다.

대전중구문화원 송년의 밤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 29일 오후 6시 중구문화원에서 열리는 2016 대전중구문화원 송년의 밤에 참석.

시설물 관리실태 등 점검



박용갑 중구청장= 29일 오후 2시 뿌리공원을 방문해 동절기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점검.

송년 가족음악회



장종태 서구청장= 29일 오후 7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서구민을 위한 송년 가족음악회'에 참석.

사랑나눔 떡국떡 썰기 행사



허태정 유성구청장= 29일 오전 10시 유성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리는 유성구 적십자봉사회 사랑 나눔 떡국떡 썰기 행사에 참석.

공무직 정년퇴임식



박수범 대덕구청장= 29일 오전 10시 30분 구민의 사랑방에서 열리는 공무직 정년퇴임식에 참석.

#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행위 6개소 적발

## 市 특사경, 의약품도매상·약국 등 형사입건·행정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약사법 위반 기획 단속을 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도매상 및 약국 등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고 관찰구에 행정조치 요청했다.



이런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의 안전한 의약품관리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개설자의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수사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상과 이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되며, 영업소/사무실에 의약품을 보관하여 위반했다.

# 대전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 개장

학생·시민 북적 북적... 시 새로운 명소로 부상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28일, 엑스포시민광장에 야외스케이트장과 민속놀이장을 개장 했으며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개장식은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김경훈 대전시의회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등 주요 내빈과 공사·공단 사장, 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타악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된

개장식은 기념사, 축사, 개장선포식, 쌀매타기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엔젤스의 축하공연인 스케이트쇼가 펼쳐졌다. 권선택 시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개장한 엑스포시민광장 야외스케이트장은 즐거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하여 겨울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전한 여가활동 공간으로 주변의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한밭수목원과 함께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의무실을 설치하여 간호사를 배치하고, 시설별 책임관리요원을 배치하며 119안전센터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쌀매타기대회' 등 주말 이벤트와 초보자를 위한 '스케이트 강습'이 함께 운영되며, 군·군구구마체협, 병어잡기체협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실증'에 나서

근로복지공단, 현대중공업·울산첨초경제혁신센터 등 MOU 체결

근로복지공단은 28일 산하 대전병원에 국산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를 설치하고 현대중공업, 울산첨초경제혁신센터 등과 원활한 실증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로봇 보급 및 실증은 미래 창조과학부의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첨단 의료자동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봄 서울, 광주, 울산에 로봇이 설치된 데 이어 충청지역에도 실증거점을 확보한 것이다. 치료대상 측면에서도 서울아산

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등의 급성기환자군,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의 만성기환자군에 이어, 이번 산재환자군으로 확대해 보행재활로봇의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성호 근로복지공단대전병원장은 "최근 산업업으로 주목받는 의료로봇의 대전병원 실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면, 의료자동화 산업육성은 물론 국내 산재환자의 직업·사회복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에 대한 CE인증을 획득해 해외수출에 한걸음 더 다가섰으며, 이번 실증병원 추가를 계기로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거점 병원 트랙레코드 축적 가속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은 대전·충남지역 거점 산재의료기관으로서 산재환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치료하는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공단산하 직업병원 및 재활전문센터와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산재환자를 위한 최상의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송병배 기자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막바지 시설점검

# 복지증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한편택 동구청장은 28일, 장애인 단체, 시공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과 함께 구도동 남대전종합물류단지 내 건립 중인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현장점검에 나섰다.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65㎡ 규모에 재활치료실, 정보화 교육실, 체육물류단지 내 건립 중인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한택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은 내년 4월 공식 개관을 앞두고 아름다운복지관 건 축현장을 방문, 구석구석 시설을 돌아보며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겪을 불편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영호 기자

# 자치경쟁력 최상위권 알찬 '결실'

유성구, 전국 2위 두각... 젊은 도시 특성 활용한 성과 등 눈길

유성구가 올해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상승폭 전국 지자체 2위,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전국 지자체 3위 등 지방자치 시대 경쟁력업원이 필요이상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어 이로 인한 무자격자의 의약품조제 및 판매 행위가 우려되며, 이는 의약품 관리자의 인식결여로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의약품도매상의 불법 유통·관리,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불량 또는 사용기간 지난의약품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최병조 교수팀

# 美 탈장학회 학술지 게재

탈장수술 시 배꼽 구멍만을 이용해 수술하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기존의 3~5개의 구멍을 절개해 시행하는 다공 복강경 수술보다 수술 후 통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탈장전문센터(센터장 이상철 교수) 최병조(제1저자), 이상철, 정원준 교수팀은 단일공 복강경 탈장수술과 기존 복강경 탈장수술의 임상결과를 비교한 논문 '단일공 복강경 대 기존 복강경 서혜부 탈장교정술-전향적 무작위 비교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병조 교수팀은 99명의 서혜부 탈장 환자를 무작위 배정법으로 나눠 단일공 복강경 수술(50명)과 다공 복강경 수술(49명)을 시행한 후 일주일째 통증 지수를 측정해 결과 단일공 수술은 1.7점, 다공 수술은 2.6점으로 단일공 수술이 수술 후 통증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합병증 발생률, 수술 후 입원기간 등의 지표에서는 유의적인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탈장전문센터 최병조 교수는 "단일공 복강경 탈장 수술은 수술 내용이나 범위 등은 기존의 수술과 동일하지만 절개 부위가 1cm로 적은 만큼 복벽의 부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이 단일공 수술에서 더 통증이 적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탈장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탈장학회(SCI 학술지인 'Hernia Journal') 최신호에 게재됐다.

송병배 기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배달강좌 사업설명회 개최

# 지역과 계층간 격차 해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송용길)은 28일 직장산출에서 '2017년 배달강좌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배달강좌 65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7시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배달강좌는 소외계층 및 외곽 지역 주민들이 강좌를 신청하면 진흥원에서 강사를 보내주는 '찾아가는 평생학습서비스'로 대전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이영호 기자

2016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 대덕구 대통령 표창 수상

대덕구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6년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에서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우수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책정과 관리,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과 해소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생계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월 2회 개최해 어려움에 처한 수급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왔으며, 사

김태선 기자

# 2016 기초생활보장평가 서구 우수기관 선정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6년 기초생활보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28일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를 기초로 상위 25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전국 기초생활보장분야 지자체 합동평가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홍보 ▲보장비용 환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서구는 올해 생계·주거·교육급여의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구는 전국 단위 평가에서 '2016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최우수 기관', '2016 기초생활보장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내년에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 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박관광 기자

# 청양군 스포츠마케팅 효과 '톡톡'

##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총 42개 전국·도 단위 대회 열려... 경제유발 효과 165억

청양군(군수 이석화)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으로 약 165억원 경제유발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이틀간 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된 전국 생활체육 배구인 초청 친선 경기대회를 시작으로 11월 18

일 제33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 대회까지 총 42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전지훈련 2회)를 개최해 3만2000여명이 청양을 방문했다.

대회 참가선수단이 길게는 열흘간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업소와 식당, 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식재료 판매업체, 농산물 납품 농업인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양군은 지난 2013년부터 본격 뛰어들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종목별 동호인 증가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군민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이석화 청양군수는 "올 한해 각종 대회 개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종목별 관계자에게 정말 고맙다"며 "내년에도 할기가 넘치는 스포츠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아산시 군 제독차량 이용 AI 방역 총력

## 집중소독 실시... 예방·확산방지 위해 큰 성과 거둬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퇴치와 확산 방지를 위해 군 제독차량을 지원 받아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AI가 확산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육군 32사단의 제독차량 1대를 지원 받아 방역에 나섰다.

군 제독 차량은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와 선장면 군덕리 623 지방도, 음봉면 원남리와 둔포면 송흥리 45번 국도 주요 도로변 그리고 AI 발생 주변에 대하여

집중소독을 실시해 AI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달 23일 신창면 행복리 산란계 농가에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아산축협, 공동방제단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소독차량 5대를 동원 AI 발생지 주변과 삼교천을 비롯한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던 소상공인 경영상황

## '소상공인 2016년 경영실태·2017년 전망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전국 소상공인 518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2016년 경영실태 및 2017년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5.9%의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비해 올해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고 응답했으며, 경영수지 또한 72.6%가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작년도 조사(『소기업·소상공인 2015년 경영실태 및 2016년 전망조사』, 소상공인 503명 대상) 결과인 55.2%의 소상공인들이 2016년 경영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며, 경영수지 또한 악화됐다고 응답한 비율(69.8%)보다도 높다.

경영수지가 악화된 이유로는 판매부진(70.5%),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36.2%), 국내·외 정국혼란(33.0%) 등을 이유로 꼽았다.(복수응답)

소상공인 4곳 중 1곳(25.1%)이 올해 직원을 채용했고, 내년 채용계획이 있는 소상공인은 올해보다 줄어든 22.2%로 나타났다.

노후준비가 되어있다는 소상공인은 19.1%에 불과했고,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5.1%에

그쳐 절반 이상이 노후준비 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에 달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원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 및 판매부진 지속(71.4%), 정국 혼란에 따른 경제불안(48.4%), 소상공인 간 경쟁심화(36.7%) 등을 꼽았다.

소상공인 경영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는 전기, 수도세 등의 세부담 완화(49.2%), 자금지원 확대(40.9%),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 분산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29.3%) 등을 꼽았다.

강지용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와 더불어 경영난의 시행 여파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세부담 완화, 자금지원 확대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 KT&G 충남본부 대전지역 소외이웃 위한 연탄 등 나눔봉사



KT&G 충남본부(본부장 이흥주)는 경제적 여건으로 겨울철 난방이 어려운 대전지역 소외이웃들에게 연탄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지난 27일 실시한 이번 봉사활동에는 KT&G의 대학생 봉사단인 '상상발룬티어' 학생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시 동구 소재 동 인근

13가구를 대상으로 총 4,000여 장의 연탄과 생필품을 기증했다.

이에 앞서 대전지역에서 활동중인 '상상발룬티어' 학생들은 지난 1월, 대전시 동구 삼성동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제공한 바 있다.

KT&G 충남본부 관계자는 "매서운 겨울 추위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제대로 된 난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정이 많아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봉사단인 KT&G 상상발룬티어는 지난 2011년 결성돼 누적인원 6,800여 명으로 벽화그리기와 골목길 가꾸기 등 현재까지 1,300여 회의 누적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다.

김태선기자

# 농식품부 쌀·쌀 가공식품 전달식 진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세수, 이하 농식품부)와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가 함께 진행한 아침밥 기부 캠페인 '#밥캠퍼스'가 성료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문

화를 조성하는 한편, 국내 위기가정아동에게는 쌀(밥)을 후원하여 아침식사 결식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참여자 아침밥을 먹는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에 게시해 그 '#밥캠퍼스'와 함께 올리는 방식

으로 진행됐으며, 유명 연예인 포함 600여명이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기 위해 가수 성시경, 달샤벳 수빈, 레이디 제인, 방승민 김정민, 신봉선, 이광기, 셰프 레이먼진 등 유명인과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했으며 해당 영상을 지하철 1,3,4호선, 신분당선 83개역 1,300여개 스크린을 통해 송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캠페인 성료를 기념해 1억원 상당의 쌀과 쌀 가공식품을 굿네이버스를 통해 기부했으며 해당 전달식이 27일 충남 아산시 운주중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에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국 김종훈 국장, 신법수 굿네이버스 운주중합사회복지관장에게 캠페인을 통해 기부되는 쌀과 쌀 가공식품을 전달했다.

전달된 쌀과 쌀 가공식품은 전국 굿네이버스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쌀밥이나 간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총칭 10개소, 전라 6개소, 경기·강원·각 2개소, 대전·충청 각 1개소 등 총 22개소)

아산=리량주기자



# 올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음식은?

KT CS(www.ktcs.co.kr)가 쿡북 114 통계를 바탕으로 2016년도 맛집 업종순위를 공개했다. 이번 순위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음식점 방문결제 및 114안내건수로 집계됐다.

쿡북114가 서울을 비롯한 7개 도시의 Best5 맛집, 총 35개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1위는 설렁탕 및 갈비탕 등 탕요리(34.3%)가 차지했다. 2위는 냉면 및 국수 등 면요리(28.6%), 3위 한식(17.1%), 4위 중국음식점(11.4%), 5위 기타(분식 등 8.6%)가 뒤를 이었다. 탕요리 중에서는 설렁탕(46%), 면요리는 냉면(60%)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V맛집 순위는 고기집이 단연 인기였다.

VJ특공대, 백종원의 3대천왕 등 6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맛집 중 지역별 Best5 음식점, 총 35개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고기(40%)와 해산물(22.8%)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분식(20%), 4위 한식/중국음식(14%), 5위는 기타(3%)였다.

번호안내114 문의 건수는 배달 음식이 강세를 띄웠다.

올해 114 문의건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1위는 중국음식(35.5%), 2위는 치킨(32.3%), 3위는 한식(32%)이었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공주청소년 경찰학교 운영** 공주경찰서(서장 강복순)는 지난 27일 공주청소년경찰학교에서 사곡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역할극 및 모의사격, 과학수사, 장비체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금산소방서, 행복나눔 프로젝트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 28일 소방서 3층 서강실에서 한국타이어(주) 금산공장(공장장 신동필)로부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전달받았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소방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전달식은 금산군 제원면의 화재예방과 안전환경 조성, 기업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산경찰서, 청소년문화위원회, 장학금 수여** 서산경찰서(서장 손중국)는 지난 27일에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서천소방서, 차량유형별 화재대응능력 강화 특별교육** 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는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차량화재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28일 소방서 본서에서 구조대원 등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등 차량화재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청양서, 연말연시 맞춤형 특별치안활동 전개**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숙)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주인한 폭력 및 청소년 비행과 절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2017. 1. 30일까지 '민생안정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추가 접수

#### 대전충남병무청, 잔여 공석에 대한 추가접수 실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은 '17년 1월 5일 오후 4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잔여 공석에 대한 추가접수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추가접수는 당초 14일부터 20일 사이 접수했던 본인선택의 추첨결과 및 잔여공석에 대해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더불어 17년 1월 16일 오후 4시부터는 2017년도 선복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선복무 제도는 군사교육소집 전에 복무기관에서 먼저 복무를 시작하는 제도로 군사교육소집제외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복무 신청은 주민등록지 시, 군, 구 공석의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송병배기자

# “스마트폰 실버·청소년 요금제, 불리할 수 있어”

## 한국소비자원, 요금제 또한 다양하지 않아 이용의 실익 부족 나타나

이동통신 3사(KT, LG유플러스, SK텔레콤)는 고령자 및 청소년의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LTE 스마트폰 전용 실버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건표)이 이동통신사의 실버요금제와 청소년요금제 운영 실태 및 이용자 설문조사(스마트폰을 이용하는 60대 이상 43명, 13~19세 청소년 432명, 온라인 설문(비확률표집),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 3.3%p, 2016. 8. 31. ~ 9. 2)를 실시한 결과, 음성통화나 데이터의 기본제공량이 해당 연령층의 평균 사용량에 비해 부족하고, 요금제 또한 다양하지 않아 이용의 실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이용자 43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 음성통화 사용량은 163분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 실버요금제 중 60대 이상 소비자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인 2.79GB보다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1종

에 불과했다.

통신사별 최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은 KT가 500MB, LG유플러스가 1GB에 불과했고 SK텔레콤 역시 2.79MB 이상 제공하는 요금제는 1종뿐이어서,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일반요금제와 비교해 요금의 실익이 부족했다(기간 약정 할인이 없는 요금제를 기준으로 함).

LTE 스마트폰 전용 실버요금제는 'SK텔레콤'이 10종으로 가장 많고 KT 3종, 'LG유플러스' 2종에 불과했다. 전 연령이 이용 가능한 데이터선택요금제가 통신사별로 7~9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SK텔레콤을 제외하고 실버요금제에 대한 선택의 폭은 좁은 실정이다.

또한 실버요금제 15종 가운데 3종을 제외한 12종이 200MB에서 1.2GB 사이의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고, 음성통화 기본 제공량도 150분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13세~19세 스마트폰 이용 청소년 43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6.49GB, 음

성통화 사용량은 109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은 최대 3GB에 불과하고, 조절제공량을 사용하더라도 음성통화를 100분 이상 사용할 경우 데이터를 최대 4.5GB 내외로만 사용 가능하다.

기본 제공데이터 소진 후 400kb의 속도로 무제한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요금제도 있으나 이 속도로는 동영상이나 대용량 파일을 실행하기 어렵다. 또한 밤과 후 시간 데이터 할인, 교과·음악 전용 데이터 추가 제공 등의 요금제도 출시되어 있으나 기본 제공 데이터 양 자체가 적어 상당수 청소년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요금제 중에는 통화·문자·데이터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조절제공량알, 링원을 기본요금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요금제가 있다. 그러나 일

**조치원읍,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복제 종합행정복지센터(읍장 홍순기)가 9월~12월 건축물 부설주차장 839건을 점검하고 4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건물 주인들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불법 용도변경(21건) ▲기능미유지(19건) ▲기타(8건) 등으로 모두 48건(131면)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24건(77면)의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나머지 24건(54면)은 행정처분을 요청 방침이다.

조치원읍 유재연 안전도시과장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통해 주택가 주차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 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업체 적발

###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기청(중기중앙회) 및 한국토주주택공사와 안전관리자 중 화재수신기에 대해 3주간 공동조사를 17개 제조업체 중 부당납품 8개사(47%)를 적발하였다.

이번 공동조사 결과로 부당납품

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은 "앞으로도 안전관리자에게 대한 직접생산확인 3주간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부당납품 예방을 위하여 관계 기관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봉관기자

## 모든 살생물질 승인 받아야... 엄격 관리

### 생활화학제품 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등 문구 사용 못해

앞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살생물질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조·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화학물질은 모두 등록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의 광고에는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생활화학 안전주간'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재사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6 생활화학 안전주간'에서 관람객들이 생활에서 쓰이는 화학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재사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화학물질 매출액의 일부에 상당하는 과징금도 부과된다.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은 등록여부나 함량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제조자가 물질을 구매하는 자에게 유해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된다. 또 발생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유해성이 의심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가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한물질(노벨페놀 등 현재 12종)'을 사용이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이 신설된다. '허가물질'은 현재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고 그 외는 제 없이 쓸 수 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선기자

## 청양소방서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홍보 안내문 설치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운)는 28일 청양군과 함께 청양 백세공원과 칠갑산 출렁다리 입구에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제작한 심폐소생술(CPR) 홍보 안내문을 설치했다.

이는 최근 여가활동 및 건강관

백세공원과 칠갑산 출렁다리에 설치된 심폐소생술 홍보 안내문은 88m×210m의 스테인레스 입간판으로 제작됐으며, 의식확인·가슴압박·기도개방·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을 그림으로 표시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숙지·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빠른 처치가 환자의 소생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심폐소생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 돌입

### 당진소방서,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 위해 실시

당진소방서(서장 방상찬)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연시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에는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소방관서장 중심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를 통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함께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안전한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인구가 운집하여 인명피

## 119시민체험센터 체험자 10만명 돌파!

### 대전소방본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개칭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 119시민체험센터 체험자가 2014년 4월 29일 개칭 후 2년 8개월 만인 28일 10만 명을 넘어섰다.

10만 명 체험의 주인공은 사전예약을 신청한 배재대학교 한국어 교육원 외국인 어학 연수생들로 축하 기념사진 촬영 및 기념



**천안서북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보성)는 28일 천안서북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소년법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 “직장인, 올해 연차 절반 밖에 못썼다!”

## <사람인> 이유로 ‘상사 또는 팀원들의 눈치를 받아서’ 첫 번째로 꼽아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증시되면서 연차 휴가를 적극적으로 쉼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직장인들은 부여된 연차의 반밖에 못 쓴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연차 휴가제도가 있는 직장인 1,172명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올해 직장인들의 연차 부여일수는 평균 132일로 집계됐다.

하지만, 12월 현재까지 직장인들이 사용한 연차일수는 평균 7.4일로 부여일수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 지난해 연차가 있었던 직장인들(910명)의 22.2%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연차 사용일수가 ‘줄었다’라고 응답해, 늘었다는 답변(16.8%)보다 많았다.

남은 연차의 소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연차가 남아있는 응답자들(1,013명) 중 절반이 넘는 57%가 ‘쓰고 싶지만 못 쓸 것’이라고 밝히, ‘사용할 것’(25.9%)이라는 직장인의 2배가 많았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4.8%였다.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직장인들(751명) 그 이유로 ‘상사 또는 팀원들의 눈치를 받아서’(47%,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가 너무 많아서’(32.2%), ‘다들 안 쓰는 분위기라서’(28.9%), ‘사유를 대지 않으면 못 쓰게 해서’(21.2%), ‘딱히 연차를 낼 일이 없어서’(19%),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17%) 등을 들었다.

연차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이 회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스트레스로 업무 능률 저하됨’(58.7%, 복수응답)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계속해서 ‘피로 쌓여 건강에 악영향 미침’(52.3%),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게 됨’(39.5%), ‘애사심이 저하됨’(39%),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게 됨’(29.2%),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받음’(7.7%), ‘급여가 늘어남’(7.6%),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 인정 받음’(4.5%), ‘인사평가를 잘 받음’(3.5%)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차 사용 분위기는 어떻게?

연차 돌려 매달 등으로 연차소진을 권장한다는 응답은 46.8%였다.

실제 연차 사용의 자유로움 정도는 ‘소속 부서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36%),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28.5%), ‘모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28.1%), ‘직급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7.4%)의 순으로,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연차를 쓸 수 있다는 답변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8%는 올해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써보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53.7%는 연차 휴가 중에도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것 중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어진 연차 소진’(59.9%)이라는 응답이 ‘연차수당 지급’(40.1%)보다 19.8%p 높았다.

이정복기자

## 금산교육지원청, 퇴직공무원 송공패 전달

평생 교육 위해 헌신해오다 31일 퇴직하는 교직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중대)은 28일 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해오다 31일부로 퇴직하는 교직원에게 송공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공패는 금산여자중학교 이영길, 금산중 김화년, 제원초 서정찬, 성대초 하태영 교직원에게 전달되었다. 퇴직공무원들은 지난 30~40년간의 세월을 뒤돌아보며 후배공무원들에게 항상 우리

들의 미래인 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손중대 교육장은 “평생을 몸바쳐 제자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며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꿔나가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당진 서야고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져



## 미당초,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청양 미당초 노인회관 방문 봉사활동 실시

청양 미당초등학교(교장 이관복)는 지난 27일 전교생과 교직원이 미당 1리 노인회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평소 갖고 있던 솜씨로 어르신들을 위한 춤, 노래, 난타 공연 등의 자기자랑을 통해 꿈과 끼를 펼쳤으며, 손

자, 손녀들의 멋진 재능을 어르신들은 큰 박수와 웃음으로 호응하며 즐거움으로 답했다.

장기자랑이 끝난 후 어르신들의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가졌다.

청양=정상범기자



## 엄사중학교 축제 ‘엄사의 빛’ 성황리 개최

엄사중학교(교장 이희천)는 12월 27일 2016년 학교 축제 ‘엄사의 빛’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엄사의 빛’ 축제는 오전과 오후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오전에는 교내 일원에 전시된 각 과목별 작품과 자유학기 작품을 감상하며 각종 체험을 해 볼 수 있게 꾸며졌고 오후에는 계룡예술의전당에서 학생들의 감춰진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 공연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2016학년도 ‘엄사의 빛’ 축제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이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각 동아리 활동과 자유학기 활동을 통한 작품 전시와 학급별 자기자랑 등으로 축제를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축제였다.

또한 2학년 가야금 독주와 엄사캠버의 특색 공연을 통하여 수준 높은 무대를 꾸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태선기자

## 천안교육지원청, 2016 천안교육 유공자 표창

### 유공분야별 17명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욱)은 2016년도 한해 동안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온 17명의 유공자에게 표창했다.

수상자는 학생 교통안전 지도와 건강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온 유관기관 공무원과 학생 생활지도, 엘리트체육, 교육복지, 진로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표창하고 교육가족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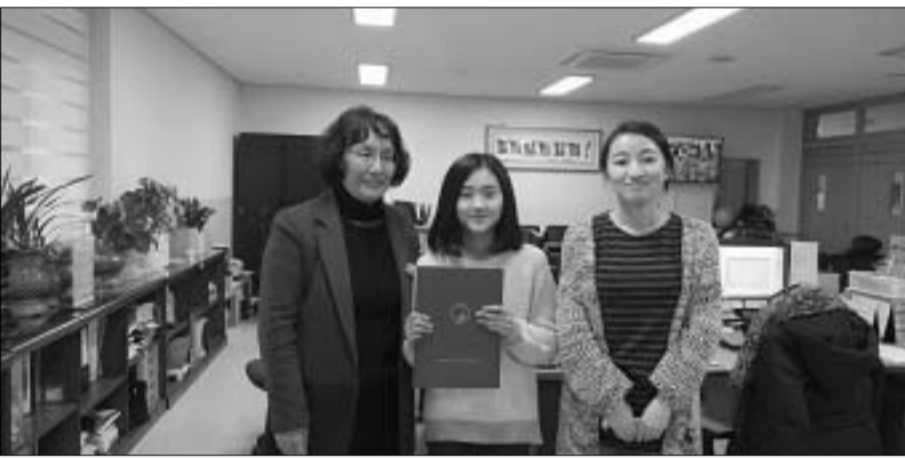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완욱 교육장은 “지역사회에서 천안의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애써주시는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공동체와 유대를 강화하여 행복한 학교 꿈이 있는 천안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

### 세종교육연구원, 독서교실 수강생인 임가현 양 입선



세종의 한 어린이가 책 속의 장발장에게 공금한 것을, 염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쓴 ‘한글 손 편지’가 공모전에서 입선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원장 이현복, 이하 세종교육연구원)은 ‘제2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에서 독서교실 수강생인 임가현 양(9)이 입선(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했다고 밝혔다.

전국 ‘제2회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은 국립한글박물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주최로 인터넷 등의 디지털 환경에 노출이 심한 어린이들이 책을 보다 가까이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계획했다.

전국 332개관이 참여하고 9,000여명이

출품한 작품 중에서 임가현 어린이의 ‘한글 손 편지’는 최종 53개 작품과 함께 본선에 올라 입선의 영광을 얻었다.

이번 공모전에서 입선한 임가현 양은 ‘장발장’이란 책을 읽고, 주인공 장발장에게 “무례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저씨께 여쭈어 볼 것이 조금 많아요”라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형식으로 편지를 작성했다.

편지 마지막에는 “저도 언제나 응원할게요”라고 말을 맺으며 주인공 장발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현복 원장은 “세종교육연구원 수강생이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이 즐겁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 충남학생임해수련원, 다문화 공감교실 운영

###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편견 없는 학교문화 조성하고자

충남학생임해수련원(원장 김중은)은 초·중·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다문화공감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보령시다문화센터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다. 센터 전문강사의 다문화이해를 위한 강의에 이어 6개국 이주자 여성이 직접 자국의 전통놀이 및 의상 등 문화체험 부스를 운영해 생동감 있는 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전국스포츠클럽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대전여고학생들의 합작 댄스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등 참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유도했다.

김중은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며,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정복기자

## 학교체육대상 충남 3개 분야 수상 ‘활짝’

### 천안업성고 정규진 교사, 서산여고 에프아이디팀, 태안여고 배드민턴 스매시팀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26일 열린 2016 학교체육대상 시상식에서 천안업성고 정규진 교사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분야 교육부 장관상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분야에서 서산여고 댄스동아리 에프아이디(F.I.D)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분야에서 태안여고 배드민턴 스매시팀이 각각 단채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 주최, 스포츠조선 후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 학교체육 대상은 ▲학교체육교육 내실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등 4개 분야 별로 개인 및 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2개 분야에서 단체 시상이 이뤄졌다.

정규진 교사는 천안업성고 플로어볼 동아리를 열성적으로 지도하고, 충남체육교육 모니터링 봉사단 활동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서 개발 등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산여고 F.I.D팀은 부원 9명이 합심해 스토리와 안무를 구성하고 열심히 연습해 지난 제9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대회에서 여고부 1등을 차지 바 있다. 태안여고 배드민턴 스매시팀은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소질과 기량을 계발하고 연미해 충남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10회 우승,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우승 2회, 준우승 1회 등 화려한 위업을 달성했다.

내포=전용식기자

## 아산시, 청소년 대상 진로특강 개최

### 관내 고교생 70명 대상...고교생 건전한 직업관 형성 위한 진로 특강



아산시는 12월 26일~27일 이틀간 관내 고교생 7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진로특강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으로 진로체험 및 직업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직업세계관을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다행스럽고 함께하는 진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진로탐색검사, 나의 꿈 리스트 작성하기, 미래 유망직업 탐색 등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적성에 맞는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울소재 명문대학 대학생 4명과 함께한 토크콘서트에서는 자신의 학과 소개 및 진로 선택 스토리 전달, 학생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 응답 시간 등 학생들이 진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동기 부여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 개최된 진로특강은 아산시 지역인재 육성사업인 Hi-School 아산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고교생이 장래에 갖게 될 직업에 대해 건전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아산시 미래인재 육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동정

효예교실에서 특강



북기왕 아산시장 = 29일 오후 2시 율림회관에서 열리는 2016년 동계 효예교실에서 특강을 진행.

최종보고회



김홍장 당진시장 = 29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왜목마을 해안가 관광시설 기본계획용역 최종보고회를 주재

부서장 회의



한상기 태안군수 = 29일 오전 8시 30분 군수실에서 열리는 부서장 회의에 참석

현판 제막식



이석화 청양군수 = 29일 오후 5시 30분 청진면 행정복지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

# '방포항' 경관 개선 특화사업 최종 선정

태안군, 道 주관 공모·독자적 경관 콘셉트 디자인·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기대



태안군 방포항이 충청남도 주관하는 '서해안 경관디자인 개선 특화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서해안만의 독자적인 경관 콘셉트 디자인과 도내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道가 추진한 '서해안 경관디자인 개선 특화사업' 공모 결과 '방포항 갯마을 해안 경관 개선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서해안 경관디자인 개선 특화사업'은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도시 구축을 꾀하고 특색 있는 문화자원 및 스토리가 있는 마을을 조성해 디자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것으로, 선정되면 도비 5억 원이 지원된다. 충남도는 공공디자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지심사대상지 적정성, 지역주민 호응도 등과 서류심사(합목적성, 창의성, 지역성, 지속성, 공공성 등)를 거쳐 지난달 태안군을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50가구 103명이 거주하고 있는

갯마을이 위치한 안면읍 방포항은 서해안 최고의 낙조를 자랑하는 꽃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다. 갯마을엔 천연기념물인 모감주나무 군락지가 있는 태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각종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이다. 주변 환경이 낙후돼 경관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은 물론, 道가 현재 방포항에 대한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방포항이 명실상부한 서해안의 대표적 해안경관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도시건축과 내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고 지역 미관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9월 태안을 중양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서해안 경관특화사업에도 선정되는 등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공모사업에 선정에 따라, 앞으로 방포항 인근 꽃이 해수욕장 내 할미·할아비 바위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을 마련하고 모감주나무 군락지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는 등 경관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내달 스타트

당진시,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9개 과정 41회 걸쳐 추진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내달 4일부터 24일까지 9개 과정, 41회 차에 걸쳐 실시한다. 교육대상 농업인은 총 4,740명이며, 교육과정은 3농혁신 리더과정 등을 시작으로 ▲여성농업인 과정 ▲강소농 ▲시설채소 ▲유용미생물 ▲쌀 ▲채소 ▲고구마 ▲감자과정이 운영된다. 교육장소는 지역여건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본소와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복지회관 등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벼 대체작물에 대한 기술보급과 농업·농촌 여건변화에 대응한 영농방향 설정을 비롯해 새해영농설계 방향과 2016년 영농평가를 반영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득증대 방법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센터 관계자는 "고병원성 시가 확산 예방을 위해 이번 모든 교육과정에 축산농가 종사자의 참석은 부득이 제외했다"며 "새해 영농의 출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마무리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건강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큰 호응

당진전통시장, 건강홍보관 찾은 시민 1100명 넘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당진전통시장 일원에서 진행된 '건강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시장상인들과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은 당진시보건소와 당진시간사회, 당진시장상인회가 손을 잡고 평소 건강을 챙기기 힘든 시장상인들의 건강한 활동을 돕고 경기침체와 대형마트 확장 등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건강기초검사와 건강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운영 결과 건강홍보관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총 1148명으로 집계됐으며, 금연실천과 결핵예방,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도 3,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선별검사 188건, 호기입산화탄소 측정 1029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1,383건 등 기초 건강검사를 받은 사람도 2,600명에 이르는 등 시장상인들과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는데 앞장섰다. 특히 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지난 5월 31일 충남도 행사인 제29회 금연의 날 행사를 전통시장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건강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의 성



공 배경에는 생업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도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보건사업을 한자리에 통합 운영해 최고 수준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이 꼽힌다. 한편 시 보건소는 시장상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2017년에도 건강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 운양2동 행복키움추진단 성과보고회

복지통장·우리웃지킴이 등 40여명 초대

운양2동 행복키움추진단은 27일 운양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후원자, 자원봉사자, 복지통장, 우리웃지킴이 등 40여명을 초대해 2016년 행복키움추진단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해 동안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진행해 왔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반찬지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에 대한 사업보고 및 복지허브화 관련 교육동영상 과 운양2동 행복키움추진단 활동 동영상을 시청하며 2016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다. 행복키움 관계자는 "월 평균 물품 후원을 제외하고도 180여 만원을 지원하는 등 한해 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함께 해준 단원 및 봉사자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2017년도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산=리량주기자



## 적곡리 리도 확·포장공사 준공식 가져

청양군 장평면(면장 송석규)은 지난 27일 적곡리 마을회관에서 이석화 청양군수를 비롯한 군 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곡리 리도 207호 확·포장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적곡리도 207호는 도로 폭이 협소하고 농경지 출입 및 차량통행이 많아 주민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770m, 폭 6.5m 개설로 2015년 12월에 착공해 1년 만에 준공을 맞게 됐다. 정한용 적곡리장은 "적곡리도는 폭이 좁고 경사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었었는데 이번 도로 확·포장공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3년째 이어지는 이롭다운 행복나눔 노인회 신창면회, 후원금 전달식

(사)대한노인회 아산시 신창면분회(회장 오세근)는 지난 27일 신창면에서 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인 가운데 저소득 노인 44명에게 660여만원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201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각마을 경로당 회장님들이 매월 1만원씩 적립하여 2014년도 25명(1천만원), 2015년도 17명(680만원), 금년 2016년도 44명이 선정되어 행복나눔 지원금 전달과 함께 소외된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김정식 신창면장은 "어르신들이 수혜의 대상이 아닌 기부 주체가 되어, 직접 나눔을 통해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신창면 분회 및 도움을 주신 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는 신창면 분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 청양군 연말 앞두고 사랑의 기탁 줄이어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에 거주하는 이상규씨가 지난 27일 지역의 12·36개월 영아들을 위해 써 달라며 시가 960만원 상당의 분유를 청양군에 기탁했다. 이상규씨는 "남양유업에 다니는 아들의 도움으로 분유를 기탁하게 됐다"며 "분유 값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봉면 용천리 노인회장이 부구씨는 용천리 경로당 보수에 대해 감사하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만원 상당의 백미 20kg 10포를 기탁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태안군, 5대 암 내시경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군 보건의료원에서 내년 1월부터 적용, 방문 당일 검진 가능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 등 5대 암 검진을 대상으로 '당일 원스톱 내시경 검진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보건의료원은 내원 환자들이 예약 후 재방문하거나 인근의 다른 검진기관으로 안내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예약제만 실시되던 위암 내시경 검진을 새해부터 선착순 원스톱 검진으로 변경한다. 원스톱 검진은 그동안 위암을 제외한 4대 암에 적용했던 것으로 내년년부터 위암에 대해서도 원스톱 검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위암 원스톱 검진은 비수면

내수경 검진 시 적용되고 수면 내시경 검진을 원하는 군민은 예약 후 검진을 받아야 한다. 원스톱 내시경 검진이 실시될 경우 군민들이 보건의료원을 방문한 당일 내시경 검진을 받을 수 있어 내원 환자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는 "최근 위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만 40세 이상 남녀는 2년마다 위암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한다)며 "내시경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군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스톱 내시경 검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검진팀(041-671-5339)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정환기자

## 금호석유화학 신창면에 성금전달

지역 어려운 이웃 보탬 되어달라고 성금의 뜻 전해

신창면에 소재한 금호석유화학(공정장 김동국) 지난 27일,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보탬이 되어달라고 신창면 행복복지센터에 성금을 전달했다. 김동국 아산공장장은 "소외된 이웃이 추운겨울을 보낼거란 우려에 직원들과 심시일만 모았으며 조순가정 등에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성금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정식 신창면장은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지역 많은 주민들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고 있어 항상 보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조순가정 등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다양한 행복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 한 해 이끈 우수성과사업 'BEST 9' 선정

## 논산시, 올해 가장 잘 한 최고 성과사업... 'KTX훈련소역 신설' 최우수

### 음식문화개선포럼 우수기관 선정

계룡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사업 인정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지방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음식문화개선포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음식위생등급제 기반 마련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참여와 섬김의 음식문화개선 ▲건강한 식단 실천 등 5개 지표에 대한 음식문화개선포럼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는 등 우수사례 발표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는 그동안 안전한 음식문화개선포럼 정착을 위해 손 씻기 시설 설치, 아름다운 화장실 있는 음식점 가꾸기, 타 지역 우수업체 견학 등 계룡시민의 지역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 온 결과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사업, 집단급식소 식중독군 검사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니트룸 줄이기 실천업소 운영, 식품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잔맛 미각테스트 등 음식문화개선포럼을 적극 추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권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식품안전의 파수꾼으로 음식문화개선포럼의 실천분위기 확산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KTX 훈련소역 신설」을 2016년도 최우수 성과사업으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한해 결산하고 역동적인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올해 한해 분청·사업소에서 추진했던 우수한 사업을 평가해 2016년도 우수 성과사업 9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성과사업 선정은 각 부서에서 신청한 24개의 사업에 대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단사장(4명) 및 보좌관(2명)과 외부 전문평가위원(2명)을 포함한 9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 등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평가결과 ▲최우수 1건(미래사업과에서 추진한 'KTX훈련소역 신

설' ▲우수 7건(따뜻한 공동체 등 고동락(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전략기획실과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평생교육과) ▲장려 2건(타운홀미팅(전략기획실), 관·군 협조를 통한 예산절감(도로교통과), 시민공원개장(산림공원과), 강경곶갈매지(문화예술과), 청년취업지원프로그램(사회적경제과), 기획·특집 홍보추진(홍보담당관) 등 총 9건을 선정했다.

'KTX 훈련소역 신설'은 민선 5기부터 논산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으로 지난 3월 설계비 3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KTX훈련소역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우수사업인 '따뜻한 공동체 등 고동락' 사업은 함께 추진한 사회고동락(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전략기획실과 청소년 글로벌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대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문화혜택이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인재육성을 통해 미래 지역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노력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명품교육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배정환 한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업들이 면면히 지자체에서 한 가지도 도전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다양한

사업을 펼친 점이 놀랍다"며, "사업성과와 이를 설명하는 짧은 주목관들의 역량이 대단하고, 논산시를 이끌어갈 힘을 보았다"고 말했다.

평가회를 주관한 강경원 부시장은 "선정된 9건의 시책 뿐 아니라 그 밖의 우수한 시책들은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다음해 제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책추진의 동기 부여와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 이달 30일 종무실에서 우수성과사업에 대한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논산=김태선기자

### 부여군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주민 호응

내산면 서운마을 35세대 연료비 부담 완화·안전성 증가

부여군은 지난해 정부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내산면 서운마을 35세대를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공급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에너지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3억원(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2천만원, 주민부담금 3

천만원)을 투입하여 공동사용시설인 소형LPG저장탱크(29호)와 배관망, 옥내 배관 및 계량기, LPG보일러 등을 설치했다.

군은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미리 주민설명회를 열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함께 LPG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인근 시군 마을을 견학하여 장단점을 확인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노령인 점과 가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일러 실내 가스누출 자동차단장치도 설

치했다. 현장 방문한 이용우 군수는 "비싼 기름 값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는 어르신들이 저렴하고 안전한 가스를 사용해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외된 연료 취약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 복지혜택을 위해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재기 서운마을 이장(50세)은 "우리 마을에 저렴하고 안전하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LPG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이 준공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마을주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을의 나머지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 서천군 자원봉사 거점센터 사업보고·토론회 가져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27일 서천문에의 전당 소강당에서 자원봉

사자 및 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 거점센터 사업보고 및 2017년도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거점센터의 역할 정립과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2016년 8개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활동 평가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와 2017년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높이는 축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 정원숙 강사디모스를 초빙해 '자원봉사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됐다.

노박래 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삶이 좋은 서천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원봉사 활동에 지속적 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창완 자원봉사센터장은 "2017년도에 거점센터를 13개 읍면에 확대 운영하여 자원봉사 손길이 필요한 곳곳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천=김태선기자

### 천안시 홍대용과학관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운영

'시뮬레이션 천문교실'·'담현천문교실' 등 특별 프로그램 제공



천안홍대용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과 2월 두달간 '겨울방학 천문교실', '시뮬레이션 천문교실', '담현천문교실' 등 다양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겨울방학 천문교실'은 상현달이 잘 보이는 1월 6일(금)과 1월 7일(토) 양일간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5시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평소 체험이 가능한 전시해설, 주관관측, 체험시설을 기본으로 하고 외부강사 특별강연, 천문공작교실, 3D우주유영, 야간특별관측 등 색다른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된다.

담현천문교실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간 90명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

된다. 동양의 '코페르니쿠스' 또는 '데오나르도 다빈치'로 불리는 홍대용선생님의 업적과 동·서양천문학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으로 천체·오리온자리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서양별자리와 우리조상들의 동양별자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본다.

특히,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과 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등 조상들의 우주관을 알아볼 수 있고 동서양 별자리표를 직접 제작·비교분석하여 각 별하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유익할 점은 이번 프로그램들은 인터넷 사전예약제(선착순마감)로 시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참여를 위해서는 미리 예약시간을 확인하고 행되며, 지구의 세차, 별의일주, 계절변화, 내행성과 외행성, 일식과 행성현상의 이해, 과거 삼국사기에 기록된 일식과 행성현상 기록의 사실여부 검증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게 된다.

담현과학교실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간 90명을 대상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

된다.

천안=김정환기자

### 농촌지도사업 우수기관 수상

농기센터, 생물적 방제 T/F팀 구성 등 부여군 농업 UP

부여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석)는 2016 충남농촌진흥사업 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충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농촌진흥사업 발전과 농업조직 성과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한해 동안 추진한 농촌지도사업, 특수시책, 조직운영 등 20개 지표에 대한 엄격한 조사로 진행됐다.

올 한해 부여군농업기술센터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신성장 먹거리인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센터 내에 곤충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식용곤충 사육 실용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 새로운 미래성장 소득원으로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앞선 사업 추진으로 평가됐다.

특히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T/F팀을 구성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는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수요 증가와 천적농업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농업기술 교육기관(PETC+)에서 딸기능업인 2명과 9일간 전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농업국의 기술을 습득, 부여 농업의 리더가 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했다.

국화연구회는 1년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준비한 작품으로 제 13회 굿뜨래국화전시회를 개최하여 국화향 가득한 20,000여점의 작품을 공남지역에 전시해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부여군 농촌진흥사업의 부흥을 위해 직원들과 함께 앞만 보고 뛰다보니 이렇게 큰상을 받게 됐다"며 "이번 수상이 부여군 농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폭제 역할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올 한해처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와 농업인에게 환경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여=이정복기자

### 독거노인 찾아 봉사활동 실시

계룡고등학교 4-H회, 연탄 1200장·쌀 80kg 전달

충남 계룡고등학교 4-H회(꽃가마)가 계룡시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학생들이 정성을 들여 준비한 생필품을 전달해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계룡고 4-H회는 이달 2주 동안 등굣길, 점심시간, 학생자치회 문화축전 등에서 모금한 82만원의 기금으로 연탄 1,200장과 쌀 80kg을 마련하여 지난 24일 독거노인 47가구를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진희 4-H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추운 겨울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계룡고 4-H회는 계룡시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학교4-H로 농심향상을 위한 과제교육 및 체험,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며 4-H이념인 자력노력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 동정

천안시 복지재단 감사의 밤  
구본영 천안시장은 29일 오후 2시 천안시청 봉사홀과 신부문화관에서 개최되는 '2016년 시민참여 나눔 공개방송'에 참여하고, 오후 6시 30분 봉사홀에서 열리는 '천안시 복지재단 감사의 밤'에 참석.

### 강경원 부시장 명예퇴임식

황명선 논산시장은 29일 오전 11시 논미세마을금고에서 개최되는 2016 새마을지도자 논산시 평가대회에 참석,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강경원 부시장 명예퇴임식에 참석.

### 하반기 정년·명예퇴직자 간담회

노박래 서천군수는 29일 오전 11시 군수실에서 열리는 2016년도 하반기 정년·명예퇴직자 간담회에 참석

### 콘서트

이용우 부여군수는 29일 오후 5시 부여문화원 소강당에서 열리는 불우이웃돕기 '춤' 콘서트에 참석.



기부천사 이성래씨 "올해도 또 왔어요" 이웃돕기 성금 2500만원 기탁

기부천사 이성래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나눔을 실천해 등장군의 화풍을 높였다.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성물산 이성래 대표가 지난 26일 논산시를 방문 한 해 동안 정성스럽게 모은 2,500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감사하며 논산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논산시 강경은 황산리에서 생선가게 성물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래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주변의 사회복지 시설과 어려운 이웃에게 쌀과 생선 등을 꾸준히 전달해 왔으며, 연말에는 매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현재까지 2억원이 넘는 금액을 기부해 왔다.

성금을 기탁하기 위해 평소 성실함과 근검절약으로 한 해 동안 차곡차곡 통장에 쌓아 두다가 이번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시청을 방문해 큰 나눔실천으로 지역사회에 행복도움을 높이고 있다.

이 대표의 "어린시절 불우한 가정형편으로 고통받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다"며 "내 작은 정성이 그분들의 이쁨을 덜어주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될 뿐 다른 뜻은 없다"고 말해 훈훈함을 더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고귀한 뜻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논산=이길구기자

###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동정**

**유구 신달지구임도 준공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29일 오후 2시 새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새마을을 기본 정신교육 결과보고 및 평가회에 참석하고, 오후 4시 유구읍 신달리에서 열리는 유구 신달지구 임도 준공식에 참석.

**목요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은 29일 오전 8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간부회의, 오전 9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연말 유공시민 표창수여식, 오후 3시 보령시기업인협의회의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 오후 4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체육회 부회장 위촉수여식, 오후 5시 남포농협 회의실에서 열리는 버 직파재배 지체평가 및 간담회 참석.

**로컬푸드 장학금 전달식**



박동철 금산군수는 29일 오전 10시 상 황실에서 열리는 로컬푸드 장학금 전달식에 참석.

**유관기관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



조민행 보령 교육장은 29일 오전 10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집견실에서 진행되는 2017년 1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인용장 교부식에 참석하고, 오전 11시 30분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집견실에서 진행되는 2016학년도 학교 및 유관기관 유공자 감사패 수여식에 참석.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총합평기회**

금산군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회장 김기운)는 지난 27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박동철 군수를 비롯한 품목연구회 회장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금산군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 총합평기회를 실시했다.

총합평 기회는 군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품목별 자율학습 활동, 농산물 품평회 등 성과 전시와 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유공자에 대한 격려 및 회의를 결속시켜 도약의 계기를 마련코자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기술 보급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6명과 왕성한 활동으로 협의회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연구회 6개 연구회가 표창을 받았으며, 관내 총 28개 품목농업인연구회 중 올해 성과가 우수한 4개 연구회가 실적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박동철 군수는 "새로운 농산물 소비동향과 어려운 농업경영 여건에서도 학습하고 단결하여 성장해 가고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협의회의 활동과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산물 가공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품목별 연구회에서 금산에서 새롭게 재배되는 이색작목과 새로운 농산물 소비유통을 선보이는 소포장자재 등 다양한 전시장이 마련돼 올 한해 품목농업인연구회가 일궈낸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들깨연구소는 농산물 6차 산업으로 개발한 깻잎말이를 준비하여 첫 선을 보였으며, 식량작물연구회와 정보화농업인연구회는 약초관과 쌀장정 등을 지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 서산시 탁월한 행정역량 입증

64개 분야 수상, 인센티브 13억 5876만원 확보... "내년 시정성과 창출 최선"

서산시가 각종 분야에서 받은 상으로 탁월한 행정역량을 입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중앙부처를 비롯해 충남도, 외부기관에서 주관한 64개 분야의 평가에서 수상했다.

시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농정 ▲안전·환경 분야 등에서 고루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대한민국환경대상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대한민국 도시대상 ▲에너지이용 합리화 종합평가 ▲추계 도로정비 평가 등은 2년에서 5년 연속으로 수상해 그 의미가 크다.

또 ▲우리 마을 해양쓰레기 내가 시범사업 ▲길위의 인문학 운영 공모사업 ▲2016 충남도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안심가로등 공모사업 등 15개 분야의 선정으로 확보된 인센티브도 13억 5,876만원이 넘는다.

서산의 역발상과 꿈을 담은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생강한과의 연구개발 및 특화 향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등 다양한 SNS채널로 활발한 소통 행정을 펼친 점도 인정받아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대한민국 SNS 산업 인센티브도 13억 5,876만원이 넘는다.

보전복지부로부터 자살예방사업 최우수기관, 한의약간담증진사

업 우수기관 등에 선정된 점은 시가 추진 중인 보건 사업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완성 서산시장은 "이와 같은 성과는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17만 5천여 서산시민이 힘써 이뤄낸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성과 창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민기자

## 공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 박차

옥룡동 지역 생활오수 원활히 배제... 주민 보건위생환경증진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옥룡동 일원의 생활 오수를 원활히 배제하기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의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총 사업비 186억원을 들여 지난 2014년 6월부터 동충부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가정에서 공공하수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와 우수관을 따로 설치해 우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시가 정주택의 개인정보화 사용이 줄어들어 주거환경개선, 공공보건위생 향상 및 방류수역인 금강의 수질개선 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이 지역은 우수와 주택 개인정보화조에서 1차 처리된 우수가 합류돼 우수관을 통해 공공하수

처리장 및 금강으로 방류되는 등 여름철 생활오수에 의한 악취 및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주민 불편과 잦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시는 이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옥룡동 일대 1천 4백여 가구의 생활오수 전부가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공청회

보령시, 내년부터 9년간 1671억 투입

삶의 질 향상·대체산업 육성으로 소득창출 증점

보령시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효력연장(2015년 →2025년)에 따른 개발기금을 활용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와 사업추진 동력을 재점검하고자 28일 보령문화회관에서 소공연장에서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보령시 시정여건과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한 시정 운영 방향과 부합하는 사업 발굴,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발전전략 제시 등 신성장 동력사업에 집중적으로 발굴 제시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마련한 것이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폐광지역 개발기금 중장기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으로 대체산업, 소득증대사업 등 경제성이 높은 사

업 발굴, 지역별 특화전략 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발굴·투자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1077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는 대체산업(20.8%), 공공기반시설(17.1%), 교육문화(20.5%), 환경복지(20.1), 관광진흥(21.4) 등의 순으로 활용했다.

내년부터 포함되는 중장기 계획에서는 국내·외 주요 성공사례와 종합분석을 통해 주민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 지속가능한 자립형 일자리 및 소득사업 창출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산업) 분야에서는 버섯특수작업업무를 위한 농특산물 R&D 센터 구축 및 친환경 배지제조사업 조성,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디자인 개발, 자립형 특화상품 육성지원, 활력(환경, 보건, 복지) 분야에서는 커뮤니티 웰스케어 시설 확충 및 주민건강

등 인적자원 DB구축, 365세이프타운 조성, 마을회관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관(관광진흥) 개선을 위해 테마마을 조성, 방풍옥상, 휴양림 등 관광지 일원 레포츠시설 조성, 성주산 자연휴양림 및 무궁화수목원 조성 보완, 청천호수 테마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자원(공공기반) 분야 개선을 위해 폐광도 등 광산자원 DB 구축, 성주·청라면 일원 지중화 사업, 기반시설 확충을, 마인드(교육) 사업으로 주민 및 리더 교육, 마을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년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민들은 소득의 증가와 건강 증진, 생활기반시설 확충이 한몫소여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 추진으로 삶의 질 향상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공주시, 8개 기업·사회단체서 성금기탁**

## 사랑 나눔 행렬 줄이어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사랑 나눔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공주중앙교회(담임 목사 황연호)에서 이웃돕기성금 500만원을 기부했으며, 코웨이(주)대표 이세신) 500만원, 충청남도개발공사(대표 강익재) 300만원, 공주시일번건설협의

회(회장 성두영) 300만원, 대한민국전통농경유족회(공주시지회) 지회장 윤창원) 100만원, 공주중앙교회(담임 목사 전갑재) 500만원, 일신전기(주)대표 이혜룡) 1000만원, (사)한국농업경영인공주시연합회 백미 20kg 60포(242만원 상당) 등 지회의 많은 기업, 사회단체의 성금모금이 줄을 잇고 있다.

대한민국전통농경유족회공주시지회 윤창원 지회장은 "도움이 필

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 2017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사회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주=정성범 기자

**우리/동네**

## 상옥1리 행복문화마을만들기 순조

금산군, 섀터 만들기 · 문화프로그램 사업 추진



금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행복문화마을 만들기(금산읍 상옥1리)사업이 2년차를 맞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마을의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문화를 매개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3년 동안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을 앞두고 있다. 올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마을회 및 승당 임영신 기념사업회는 이달 초 상옥1리 마을회관에서 '상옥1리 행복문화마을 발표회 및 승당 임영신 기념사업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금산군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승당 임영신 기념사업회 회원, 상옥1리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상옥1리가 행복문화마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경과보고와 승당 임영신 기념사업회 현황보고, 시상 등 이루어졌다.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추진해 왔던 프로그램 결과물인 합창, 난타, 마당극 공연이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상옥1리 김병곤 이장은 "올해는 2년차를 맞아 골목가꾸기 및 섀터 가꾸기, 난타와 마당극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마을 가꾸기 및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사업이 추진됐다"며 "난타나 마당극 등 생선 첼레보는 프로그램이라 초기에는 어색하고 격정도 많았지만 수업을 거듭할수록 웃으며 즐기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사업추진의 소감을 밝혔다.

금산=전정민기자

광고/문의 | 042)538-1603



##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공주시, 백제누리 예술품으로 아름다운 길 조성**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주민공모사업으로 열린 원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원도심을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4차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우리꽃연구회의 우리꽃 식재를 통한 환경개선, 우리꽃연구회(대표 최동진)는 무명로 벽면 아래 화단과 공주역사생관 화단에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꽃을 식재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역구석 버려진 화단을 찾아내 우리꽃으로 가꾸 나갈 계획이다.

공주문화원과 꽃꽂이문화회에서는 공주의 문화적 위상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공주시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공주역사생관, 꽃꽂이문화관, 현재 공주사대부설교등학교가 위치한 옛 충청감영터, 감영길에 있는 반죽동 일대는 1920년대 공주의 중심 시가지였던 곳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공주 원도심 재생의 활력 거점이 되고 있다.

시는 도시재생 소규모 주민공모사업으로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주 원도심을 주민이 주체가 되고 애착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공주=정성범 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언제나 봄날 (MBC오전 7시50분)



해선(이상아)은 중심(최수린)에게 자신이 세운(김소혜)의 엄마라며 세운을 보내기 싫어하지만 세운은 그런 해선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한길(최상훈)은 혜자(오미연)를 집에 초대해 함께 외출하며 친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인정(강병배) 식구들은 집 밖으로 쫓겨나고 마는데...

▲아임소리 강남구 (SBS오전 8시20분)

도훈은 면접에서 최종 탈락하자 태진을 찾아가 따져묻고, 태진에게 사랑을 붙인 명숙은 태진과 함께 있는 도훈의 사진을 본다. 한편, 도훈이 태진에게

무릎까지 꿇었던 말을 들은 모이는 근무 중에 잠정이 폭발하고, 이때 지나가던 남구가 모이를 위로해 주는데....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00분)



정호(이민우)는 흔들리지 않으며 일부러 인정(윤아정)에게 냉랭하게 대한다. 한편 금수(한지안)은 수첩을 수지(유지연)로부터 이상한 소릴 들었다며 인정에게 친모가 태진(이재용)의 관계를 다시 확인해볼 것을 제안하는데...

케이블 영화

▲전우치 (OCN 오후 7시10분)

500년 전 조선시대, 전설의 괴물 '만파식적'이 요괴 손에 넘어가 세상이 시끄럽자, 신선들은 당대 최고의 도인 천관대사(백운식)와 화담(김윤석)에게 도움을 요청해 요괴를 봉인하고 '만파식적'을 돌로 나눠 두 사람에게 각각 맡긴다. 한편, 천관대사의 망나니 제자 전우치(강동원)가 둔갑술로 임금을 속여 한바탕 소동을 일으키자, 신선들은 화담과 함께 천관대사를 찾아간다. 그러나 천관대사는 누군가에게 살해당하고 괴리 반쪽이 사라졌다! 범인으로 몰린 전우치는 자신의 개 조랭이(유해진)와 함께 그림자 속에 봉인된다. 요괴 잡는 도사도 어느덧 전설이 된 2009년 서울, 어찌된 일인지 과거 봉인된 요괴들이 하나둘 다시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제는 신부, 중, 점쟁이로 제각각 은둔생활을 즐기던 신선들은 다시 모여 화담을 찾지만, 500년 전 수행을 이유로 잡작한 그는 생사조차 알 수 없다. 고심 끝에 신선들은 박물관 전시품이 된 그림자 조각을 찾아 전우치와 조랭이를 불러낸다. 요괴들을 잡아 오면 봉인에서완전히 풀어주겠다는 제안에 마지 못해 요괴 사냥에 나선 전우치.

▲빅히어로 (채널CGV 오후 1시00분)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 <겨울왕국>을 잇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온다. 2015년 디즈니의 아심작 <빅 히어로>는 천재 공학도 형제 '데디'와 '히로'가 만든 힐링로봇 '베이맥스'가 가장 사랑스러운 슈퍼히어로로 거듭나는 액션 어드벤처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슈퍼히어로의 탄생에 예고하는 힐링로봇 '베이맥스'의 매력과 베이맥스를 개발한 천재공학도 형제 '데디'와 동생 '히로'의 형제애, 베이맥스와 히로의 특별한 우정을 담았다. 치명적인 몸매! 꼭 안아주고 싶은 힐링로봇 '베이맥스' 가장 사랑스러운 슈퍼히어로가 온다! 천재 공학도 '데디'가 개발한 힐링로봇 '베이맥스'! '데디'의 동생이자 로봇 전문가인 '히로'는 도시가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베이맥스'를 슈퍼히어로로 업그레이드하는데... 과연 이들은 도시의 위험을 막아낼 수 있을까?

케이블 & 위성 방송

▶YTN (02)398-8000 ▶스카이라이프 1588-3200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 060-398-3355

영화·오락

OCN 4:20 생화집 6:40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8:30 CSI 시즌2 12:20 가드런즈 오즈블랙시 14:40 인 타임 16:50 기술자들 19:10 전우치 21:50 지.아이.조.2

채널 CGV 2:50 추격자 5:10 콜란스킨 7:10 저지드레드 9:00 3번가 기억 11:20 미션 임파서블3 13:50 빅 히어로 16:00 서툰 사랑 18:20 빅 게임 20:00 드라마 클라 전설의 시작 22:00 겁쟁인 그녀

Mnet 6:30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랑 7:00 갓세븐의 하드캐리 8:00 양남자쇼 9:00 너의 목소리가 보여 10:30 프로듀스101 12:30 양남자쇼 13:30 MPD M.s.c Talk (SNS/매신저) 14:30 2016 MAMA 비하인드 15:30 골든 램버인 17:00 Daily Music Talk (SMS) 18:00 M COUNTDOWN (19:40 양남자쇼 20:40 Live on M (SMS) 21:40 골든 램버인 23:00 양남자쇼

스포츠·레저

MBC 스포츠플러스 10:00 제7회 남녀종합 탁구선수권대회 12:00 다시보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14:00 <복싱스페셜> WBO 주니어 타이틀 16:00 대동행 2016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18:00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하이라이트

SBS 스포츠 10:00 15-16 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한민국 하이라이트 12:00 2016 LG U-리그 3루선 마스터스 13:30 16-17 EPL 다이제스트 13:50 SBS 프로볼링 16:00 16-17 EPL 골모음 16:30 발리볼 스타 16:45 16-17 V리그 여자부 19:00 16-17 V리그 남자부 21:00 2016 ISU 피겨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하이라이트

온스타일 6:30 안투라지 시즌2 7:00 갓잇뷰티 2016 9:10 립스틱 프린스 10:20 갓잇뷰티 2016 11:35 립스틱 데이 12:45 천년째 연애중 13:05 천년째 연애중 13:50 고양이피 요리사 14:30 고양이피 요리사 15:10 갓잇뷰티 2016 16:25 명단공개 17:10 현장투쇼 택시 18:05 SNL 코리아8 19:45 갓잇뷰티 2016 21:00 립스틱 프린스

뉴스·다큐

YTN 8:00 뉴스특보 10:00 뉴스특보 12:00 뉴스이슈 14:00 호준석의 뉴스인 16:00 뉴스Q 18:00 뉴스통 19:30 신들의 시시시당 20:15 YTN 24 21:00 YTN 국민신문고

한국경제TV 6: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8:30 출발 중시830 10:00 증시리포트 10:20 재테크, 알아야 번다 13:00 증시리포트 13 15:40 부자극대 만들기 연금술사 16:30 한국경제 이슈N 17:00 성공예감 부동산재테크 18:00 생방송 부동산현황 19:00 보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00 장외주식 시구팔기 21:00 대박 천국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10:00 건강한 아침, 메디컬365 11:00 <세계 테마 기행>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1부 - 2부 12:30 아시아헌터 13:30 순간포착 위험한동물 14:00 <사파리 서바이벌> - 3부 울약한 야어들 15:00 <사파리 서바이벌> - 4부 밤의 추적자들 16:00 TV 동물농장 18:30 <아프리카의 첫출발, 나일강> - 3부 파라오의 강 19:30 <세계 테마 기행> 북대서양 4개국을 가다 1부 - 2부

음악·애니

MBC 뮤직 7:30 Good Morning MBC MUSIC 8:30 도나의 히트제기 9:30 복면가왕 11:30 Show Champion 13:00 MBC MUSIC HIT SONGS 13:00 나 혼자 산다 15:00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16:30 라디오스타 18:00 주간아이돌

애니맥스 7: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8:00 러바우지재특공대 9:00 명탐정 코난 시즌3 10:00 마음의 소리 11:00 도티&점점 TV part1 12:00 포켓몬스터 XY&Z part2 13:00 안녕 자두야 14:00 테닝메이킹 W 15:00 캡슐보이 16:00 헬로카봇 4 17:00 다이노스타 18:00 도티&점점 TV part2 19:00 명탐정 코난 시즌3

JET 7:00 고고다이노 시즌2 8: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9:00 헬로카봇 10:00 소피루이 11:00 당동미스 12:00 쿵쿵쾅쾅라 13:00 레고 프렌즈 14: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15:00 캡슐보이 16:00 델레몬스터 17:00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8:00 파워캐처 워너 19:00 파워레인저 닌자포스 20:00 마음의 소리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태안여고 배드민턴부 '2016 학교체육대상' 수상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부문... 영예로운 단체상



아산도서관 "우리가족은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전달

홍수봉·김경민 가족 현판전달



아산도서관관장 박재명은 지난 27일,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홍수봉, 김경민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서천중학교,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 열다 28일 1년 동안 진행해 온 교육과정의 결실을 맺는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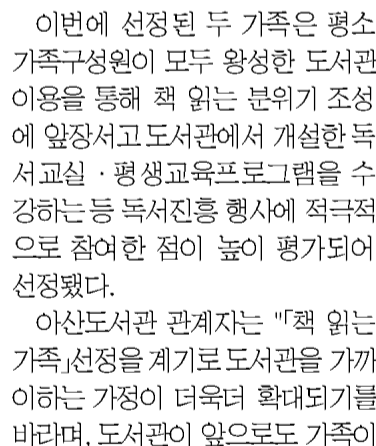
한밭교육박물관, 2016년

토요일박물관 종료

태안여고(교장 전만복) 학교스포츠클럽 배드민턴부는 지난 26일 서울 잠실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된 '2016 학교체육대상 시상식'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부문에서 영예로운 단체상을 수상했다.

아산도서관 "우리가족은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전달

홍수봉·김경민 가족 현판전달



아산도서관관장 박재명은 지난 27일,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홍수봉, 김경민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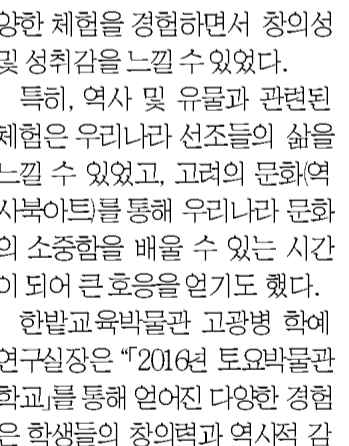


서천중학교,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 열다 28일 1년 동안 진행해 온 교육과정의 결실을 맺는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를 열었다.

한밭교육박물관(관장 황선혁)은 2016년 3월부터 2016년 12월 까지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6년 토요일박물관학교'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아산도서관 "우리가족은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전달

홍수봉·김경민 가족 현판전달



아산도서관관장 박재명은 지난 27일,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홍수봉, 김경민 가족에게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했다.



서천중학교,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 열다 28일 1년 동안 진행해 온 교육과정의 결실을 맺는 '예술꽃 스토리 공감 발표회' 및 '청솔제'를 열었다.

대덕구노인복지관, '사랑의 온기' 진행 28일 오전 10시 한국수자원공사 법무처에서 후원하는 독거노인 연탄지원사업 '사랑의 온기'를 진행했다.



**한밭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가져** 28일 오전 9시부터 학생회관 학생식당에서 유성관내 지역아동센터와 사회배려대상자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일본, 캄보디아 국제 의료봉사활동으로 화제**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사회봉사센터와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최로 해외봉사단을 구성해 캄보디아 크라체주 카오크렝 섬에서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에일레미콘(주) 심상천 회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는 지난 28일 에일레미콘(주) 심상천 회장(이하 심 회장)이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폐공사,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시연**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 27일 오후 화폐박물관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을 설명하고 있다.



**학교법인 호서학원 이사장이신 목사 취임 예배**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27일 호서대 아산캠퍼스 대강당에서 제 6대 이사장 취임예배를 가졌다. 이순신이사장은 김성원 전 이사장의 뒤를 이어 호서학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홈플러스 세종점, 밀알복지재단과 셀러 기부 마켓 진행** 홈플러스 세종점 플래티넘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신규)는 밀알복지재단 대전·충청지부(지부장 이영신)와 함께 소외된 장애인, 장애가정을 위해 플래티넘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 발전소 유휴 부지 '목초지' 조성 정부 3.0 협업과제 성공적 추진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 부분부장 박상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협업 과제가 비산면지 등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당진화력본부는 비산면지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회처리장 노출부 복토 및 식생대층 조성을 통해 석탄회 비산면지 예방에 대한 차별화 된 대책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6년도 정부3.0 과제로 선정



되었으며, 정부3.0 협업과제의 핵심가치인 개방, 공유, 소통, 협업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소 유휴 부지의 '목초지' 조성으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더욱 다가서고 있다.

당진화력본부는 회처리장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난 10월 약 2만㎡의 면적에 호밀을 파종했으며, 한겨울이지만 매서운 추위와 바람을 이겨내고 새싹들이 돋아나 광활한 대지를 한창 초록빛으로 뒤덮고 있다. 내년 5월이면 처음으로 수확의 맛을 느낄 수 있을 전망이다.

당진화력본부는 이러한 환경민원 예방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타 발전회사에 우수사례로 전파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 서산시 김성호 과장 대통령 표창 수상



서산시 김성호 과장이 평화통일 기반 구축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상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받았다.

김 과장은 민주적 평화통일 준비를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산시협의회의 지원과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그리고 범시민적 통일역량 강화와 사회 대통합을 통한 통일 의지 결집을 위해 통일시대 시민교실 운영,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 개최, 다문화 가족 방문 봉사 활동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나라사랑 태극기 봉산을 조성하고 북한이탈주민 조기 정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확고한 국가관 형성 및 통일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뒀다.

서산=김정환기자

### 금산우체국,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남일면 무의탁 노인 5가구에 1,500장 지원



금산우체국(국장·유재정, 지부장·손선기) 임직원 160여명은 남일면 무의탁노인 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연탄배달 및 방한용품 전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 5가구에 총 1,500장(가구당 300장) 연탄을 지원하였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희망하며 장

갑 및 머플러 등 방한용품도 직접 전달했다.

유재정 국장은 "경기침체로 지원의 손길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금산우체국은 다양한 봉사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실시 할 것 이며, 우리 직원들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불씨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금산=전정민기자

### 한국영성대학교, 취·창업 지원활동 등 높은 평가

### 2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한국영성대학교(총장 유재원)가 철저한 직업교육 과정 운영과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교육, 취·창업 지원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한 제2주기 전문대학 기관평가에서 '인증'을 받았다.

이 대학은 9개 기준, 25개 세부기준, 62개의 평가요소를 모두 충족하며 철저한 직업교육 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지원의 우수성,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실습교육, 취·창업 지원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유효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이다.

유재원 총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대학의 위상 제고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에게 공신력을 재인정받게 됐다."며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인증평가 모든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범기자

###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용주 교수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충남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용주 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미래정보과학부는 28일 오후 3시, 과학관 과학상훈실에서 '2016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

공자 포상수여식'을 개최하고 김용주 교수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하는 등 유공자를 표창했다.

김용주 교수는 세계 최초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상용화해 기술료 2억5천만원 달성 및 신기술, 신제품 인증을 통해 판매를 촉진했으며,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면세유 절감에 기여했다.

이정복기자

###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주민자치위원회

### 어려운 이웃 돕기 및 송년의 밤 행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동장 백준홍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창식)는 지난 27일 오후 5시부터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직능단체 회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수강생들의 난타, 풍기타, 댄스 등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 만찬과 함께 단체별로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행사를 주관한 최창식 주민자치

위원장은 "올해 회원들이 마을축제를, 김장나누기, 대청결 운동 등 살기 좋은 원신흥동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동강실에서 어려운 이웃 6세대에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정복기자



### 대전시새마을회, 4/4분기 사업추진실적보고 등

### 제4차 이사회 및 2016년 송년회

대전시새마을회(회장 한재욱)는 지난 27일 오후 4시 대전 중구 BMK 컨벤션에서 '제4차 이사회와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4차 이사회에서는 44분기 사업추진실적보고와 사업계획 변경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어 송년회는 이현주 대전시 정무부시장,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박숙현 전충청부녀회장, 새마을회장단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성과보고와 감사패 및 CMS후원금 우수 단체 시상, 민병직(주)삼보대표의 사랑의 라면 전달식, 송년사,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대전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김우연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강관구 동구지회장, 박희정

중구지회장, 정상수 서구지회장, 김영태 대덕구지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CMS후원금 우수 단체에는 구지회에서 최우수상 새마을운동동구지회, 우수상 새마을운동중구지회, 종합우수상 동구삼성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와 중구문화1동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단체별 우수상에는 새마을지도자동구신인동협의회, 동구판암1동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대덕구비래동분회가 수상했다.

민병직(주)삼보대표는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사랑의라면 500박스(1천만원 상당)를 후원하고 지구별 100박스씩 1월중에 구 지회를 통해 새마을지도자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송병배기자

### 대전도시철도, 31일

### '제이의 종 타종식' 연정은행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오는 31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리는 '2016년 제이의 종 타종식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귀가길 교통편의를 위해 열차운행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종착역인 관암역과 반석역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새벽 1시 40분까지 15~35분 간격으로 연장 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하선 편도 각각 4회씩 임시열차를 투입한다.

공사는 역마다 연장운행 안내문과 운행 시작표를 게시했으며, 열차 내 및 역구 내 안내방송,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있다. 또한 당일 수송통제, 고객안내, 임시매표소 운영 및 시설물 장애에 대비해 15명의 직원이 시정역에서 비상근무에 나선다.

김태선기자

### 인사

#### ■ 충남도

◇3급 승진  
▲자치행정국장 이윤선 ▲국도교통국장 정석안 ▲인재육성과(교육과전) 유병훈(승진요원) ▲인재육성과(교육과전) 이건호(승진요원)

#### ■ 배재대학교

▲대학원장 박한식 ▲대학원 부원장 강철구 ▲교수학습원 부원장 이현주 ▲국제교류처장 박원규 ▲국제교류처 부처장 이병엽 ▲총무처장 이재복 ▲시설처장 안중원

#### ■ 한국조폐공사

◇하부기관장 전보  
▲제1본부장 김기동  
◇1급 전보  
▲보안제품사업장장 이권철 ▲화폐본부 관리처장 김영석 ▲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병욱

※ 충남도, 한국조폐공사 인사 본보 홈페이지 참조.

### 기고

## ‘산림치유’ 활용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를



서정민  
산림청 산림교육원 교수

산림을 활용해 목재 생산 외에도 여가 및 휴양활동을 누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을 이용한 적극적인 건강증진 개념을 도입한 산림치유를 제안하고 있다.

산림치유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산림치유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1995년에 시작돼 2010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240개 마을이 조성 완료되는 등 산촌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의 참여와 기반시설 관리

등이 미비해 그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산림청이 2012년에 실시한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마을 240개소 중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마을이 62개소로 26%를 차지했다. 이에 산촌생태마을의 역량강화를 위해 새로운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고 있다.

국민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치유의 숲 이용지도 2010년에 7만 6000명에서 2014년 115만 2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국민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산림치유 개념을 치유의 숲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산촌마을 등 다양한 산림복지공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산림치유 개념을 활용해 건강증진을 모티브로 한 산촌마을의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조성된 기반 시설과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트를 도입함으로써 방문률과 소득을 높여야 한다. 즉, 산촌의 자연 및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2차 산업 및 3차 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해 산림분야의 6차산업화도모할 수 있다.

산림치유를 활용한 민간시설 또한 2007년 이후로 증가, 이러한 시설을 방문하는 방문자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수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시설 수급이 점차 늘어나면서 치유의 숲 인근 마을에서도 숙박 및 부가적인 경제적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민간 치유시설은 명상시설, 리조트시설, 의료시설, 휴양시설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용지량도 전체적으로 넓게 분포돼

있어 앞으로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촌생태마을의 경제적 활성화 및 산촌 진흥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인지도가 높은 산림치유 개념을 적용해 새로운 마을 형태의 조성·운영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치유를 활용한 산림치유마을 조성방향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23개 산촌생태마을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마을 조성 관련 인식을 조사하고 산림치유 전문가 42명을 대상으로 산촌생태마을 자원의 산림치유 연계 가능성 검토, 마을 특성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을 조사했다.

산림치유와 연계하기 위한 산촌생태마을의 특성을 분류한 결과, 산촌생태마을은 크게 연계자원(자연환경 등)·수행과 복합유수형(자원+프로그램, 자원+시설)으로 분류됐다. 또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대상자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른 분류를 추가로 실시했다.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은 1박 2일 단기형, 만성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은 1주일에서 1개월 동안 운영하는 단기형, 만성질환자 대상 프로그램은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운영하는 장기형 프로그램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취약군(약물중독, 사회부적응 청소년 등)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1박 2일 주기로 회차별 진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촌생태마을 특성과 산림치유 대상자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자원유수형 마을에서는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

며 복합유수형 마을에서는 만성질환자 대상 프로그램 운영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마을 특성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복합유수형 마을에서 일부 운영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촌생태마을의 특성과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계해서 분석한 결과, 단기 프로그램은 자원유수형 마을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하며, 중기형 프로그램은 복합유수형 마을에서 진행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 인식 결과를 종합해 산촌생태마을 유형과 산림치유 대상자를 연계한 결과, 중증질환자 대상 마을은 자원과 시설을 갖춘 복합형태 마을이 적합하며 일반인 대상 마을은 연계자원인 자연환경을 우수하게 갖춘 마을 형태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질환자 대상 마을은 자연환경과 프로그램을 모두 갖춘 마을이 적합하고 사회적 취약군 대상 마을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취약군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산림치유마을의 조성 방향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정립을 위해 산림치유마을 유형별 조성·운영 지침을 제시했다.

산림치유를 활용하는 산림치유마을 조성·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마을 자원의 산림치유 연계성 파악이 중요하며 주민의 산림치유 관련 교육과 산림치유연계성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가이드라인 적용성을 검토하고 조성·운영을 추진해야 바람직한 산촌생태마을을 활성화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건강 칼럼



김채찬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외과 과장

치핵은 항문이나 하부 직장의 정맥총이 커지고 늘어나 덩어리를 형성한 상태를 말합니다. 50대 인구에서 절반 정도가 치핵

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건강보험주요수술 통계에 따르면 약 19만 6천건으로 노년성 백내장 다음 2번째로 많은 수술 질환입니다.

**□원인**  
치핵은 항문이나 직장의 정맥혈관의 압력 증가가 구조적 이상을 야기 시켜 발생합니다. 변비나 설사 등으로 배변 시 과도한 힘을 주거나, 장시간 변기에 앉아 있을 때에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만이나 임신도 원인이 되며, 장시간 서 있는 행동, 장시간 앉아 있는 행동, 지나친 음주 등 항문 주위의 혈관을 늘어나는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치핵의 원인이 되고 치핵을 악

### 치핵이란?

화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  
치핵의 가장 흔한 증상은 출혈과 탈출(항문 주위조직이 항문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며, 이외에 항문 주변의 가려움증, 항문의 불편감과 통증, 항문 주위에 덩어리 촉지가 있습니다.

**□진단**  
치핵의 진단 및 직장암 등 다른 질환과의 감별을 위하여 직장 수지 검사, 항문경, 에스 결장경, 대장 내시경 등이 필요합니다.

**□치료방법**

치핵의 치료는 좌욕이나 약물요법 등의 보존적 방법과 치핵을 없애거나 굳히는 비수술적 방법, 그리고 치핵을 떼어내는 수술적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보존적 치료는 배변 습관의 개선 및 식이요법, 온수 좌욕, 소염진통과 항균작용을 하는 좌약 및 연고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변비약과 혈액순환 개선제 등 내복약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로는 고무밴드 결합술, 경화술, 적외선 응고술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치핵의 크기가 크거나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치핵이 탈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하여 치핵을 제거해야 합니다.

### 기고

## 경찰관 폭행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최근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 사건은 술에 취한 여성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제지를 하여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족에게 인계 해주기 위해 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그러면 갑자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경찰관에게 뛰어들자 다른 경찰관 2명이서 제지를 하였는데 한 경찰관의 머리를 붙잡고 흔들고 이를 보고 제지하던 또 한 명의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정당하게 공무원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스텝없이 공격 하였다는 것이다. 경찰관의 제1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이다.

경찰관은 365일 불철주야로 국민을 위해 어디라도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공무원이 경찰관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 중에서는 술에 취하면 분노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그로인하여 경찰관이 육체적, 정신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 만큼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무조건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응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술에 취하였다든 이유 하나만으로 실수라며 치부하기에는 너무나하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준다면 좋지 않을까 경찰관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바이다.

## 사설

### 군 기강 확립 서둘러야 한다

광주에서 현역 육군 병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소중한 생명을 잃아가는 등 군부대 밖에서 벌어지는 군인들의 위법 행위가 도를 넘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로 가림 도로에서 육군 모부대 상근병인 조모(21) 상병이 몰던 차에 환경미화원 A56씨가 치여 숨졌다.

당시 조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46%였다. 사복을 입은 채 술을 마신 조상병은 부대 출근을 위해 군복으로 갈아 입고 자집으로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지난 19일에는 육군 모부대 소속 이모(20) 병장이 전남 새벽 2시 50분께 강서구 화곡동에서 흉탄 택시를 몰고가다 신호등을 들이받던 주유소로 돌진해 주유기를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이 병장 본인이 골절상을 입었지만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유소에서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졌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

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부대 밖에서 각종 사건을 일으키고 오히려 사회 불안을 일으키는 일이 잦아지자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의 대민범죄는 1만 4천 697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가 4천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범죄가 4천 251건, 성범죄 1천 581건, 절도·강도 1천 498건, 사기·공갈이 1천 692건이었다. 도박 73건, 방화 11건, 살인은 10건이 일어났다.

군법외 보면 육군이 1만 1천 40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2천 344건, 공군 886건, 국방부 459건 순이었다.

군 기강의 해이는 국방의 해이로 직결된다. 군은 징병들의 군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아동학대 처벌 대폭 강화해야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예외 없이 구속하고 적극적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등 검찰이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근택 검사장)는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아동이 과실로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법원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테이프 7살 된 딸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의자에 묶어 회초리로 때려죽인 뒤 야산에 암매장한 '고성 친팔암매장 사건', 이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는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넣은 '부천 초등생 사건', 계모의 락스·찬물 학대 끝에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천 사건의 주범인 아버지와

원영이 사건을 일으킨 계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을 보면 징역 20~30년이었다. 법원의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구형량 수준이 올라갈 경우 실제 처벌 수준 역시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학대해도 더 세게 처벌한다. 학대 행위에 도구가 사용된 경우나 시체유기·손괴 등 악질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또 음란 행위 등 아동용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감경 요소가 없는 한 구속할 방침이라고 대검은 전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단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하여의 심어 분묘 개장공고 후오니 언고저 또는 편리한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 거 별첨해 한학 기간내에 신고거 없었시 무언고 분묘로 간주하여 일찍이 개장함을 공 고 합니다.

- 1. 분묘의 소재지 및 거주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칠소면 장곡리 255-3, 255-5, 260-1, 262-1  
● 분묘거주 : 19기
- 2.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 3. 개장방법 : ● 유언분묘 : 언고저와 협의 개장  
● 무언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협의 개장
- 4. 개장후 안치 장소 : 충남 보령시 성주면 개리리 모향공회 분묘장
- 5.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 6. 공고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 7. 신고처 : 송계역 : 연락처 010-2953-0851  
대행사 : 청산개발 연락처 010-3261-3415
- 8. 신고방법(신고제(언고저))는 사전에 분묘위치등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해당분 묘의 관계증명(제적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을 지참 하여야 한다.
- 9. 분묘 개장후 등 법제 내의 누락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2016년 12월 30일

공 고 일 : 김 동 석  
위 대리인 : 송 계 역 010 - 2953 - 0851  
대 행 사 : 청산개발 서 용 구 010 - 3261 - 3415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 · 비르스문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번호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 독 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주)중부인쇄산업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The Real concert V.O.S

한남대학교 성지관  
12. 30. (금) 20:00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 Happy New Year



Restart 2017 Début 20th

12. 31. (토) 23:00

한남대학교 성지관

# 홍경민

HONG KYUNG MIN CONCERT



같은 생각, 같은 신념

大田투데이와 함께하는

## 2016 송년 특집 콘서트

- # 본 할인권은 대전투데이에서 고객을 위해 제공되는 특별 상품입니다.
- # 본 공연의 티켓 예매는 전화예매만 가능합니다.
- # 본 할인권을 이용해서 좌석 예매를 한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공연문의 1661-5875

# R석 15,000원